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현대 주거경관을
중심으로

디자인학부

이효연

2016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현대 주거경관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이효연

이 효 연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최 경 실 _____

심사위원 박 영 경 _____

유 연 숙 _____

이 선 민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 개요	xi
I . 서론	1
A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B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 이론적 배경	5
A . 경관색채계획	5
1 . 경관색채의 개념	5
2 . 경관색채계획의 관점	6
3 .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	8
B .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11
1 . 지역색의 개념	11
2 . 지역색 구성요소	13
3 .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	16
III .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론 제안	18
A . 선행연구의 검토와 논점의 제시	18
1 . 선행연구의 검토	18
2 . 방법론의 기본방향	23
B .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 구축	24
1 . 대상지 고찰	25
2 .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26

3.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30
4. 색채계획안 제안	31
IV. 지역색을 기반으로 한 제주도 주거경관 색채계획	33
A. 대상지 고찰	33
1. 대상지 개요	33
2. 대상지 상위지침	38
B.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41
1.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41
2. 색채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42
3. 제주도 지역색 색채정보 구축	46
4. 지역색 요소 간 관계 분석	66
C.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75
1. 미국 캔트랜즈	75
2. 일본 가나자와시	82
D. 색채기준 제안	89
1. 자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을 고려한 범위	89
2.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범위	93
V.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2

표 목 차

〈표 1〉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9
〈표 2〉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에 관한 기존연구	10
〈표 3〉 지역색 개념을 고찰한 기존연구	13
〈표 4〉 지역색 요소를 선정한 기존연구	15
〈표 5〉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에 관한 기존연구	16
〈표 6〉 지역색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내용 검토	20
〈표 7〉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1	22
〈표 8〉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2	23
〈표 9〉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 제안	32
〈표 10〉 제주도 경관단위의 유형 및 분류기준	39
〈표 11〉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중 경관색채 지침 내용	40
〈표 12〉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46
〈표 13〉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색채현황	50
〈표 14〉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53
〈표 15〉 서귀포시 법환동 색채현황	56
〈표 16〉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색채현황	59
〈표 17〉 전통주거경관요소 색채현황	61
〈표 18〉 역사문화경관요소 색채현황	62
〈표 19〉 지역색 색채현황 종합	65
〈표 20〉 지역색 요소 색상 및 색조범위	67
〈표 21〉 캠프랜드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77
〈표 22〉 캠프랜드 인공경관요소 색채현황	78

〈표 23〉 캔트랜즈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색상 및 색조범위	79
〈표 24〉 히가시 차야가 색채현황	83
〈표 25〉 히가시 차야가 주변 주택가 색채현황	85
〈표 26〉 가나자와시 전건지구와 주택가의 색상 및 색조범위	86
〈표 27〉 색채기준1: 주조색 적용범위	90
〈표 28〉 색채기준1: 보조색 적용범위	92
〈표 29〉 색채기준1: 강조색 적용범위	93
〈표 30〉 색채기준2: 주조색 적용범위	94
〈표 31〉 색채기준2: 보조색 및 강조색 적용범위	9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4
[그림 2] 지역색 추출을 위한 경관요소 분류	14
[그림 3] NCS INDEX ORIGINAL	27
[그림 4] NCS 디지털 팔레트 NCS_PALETTE_2.0_CREATIVE	28
[그림 5] NCS 색상환 및 색조틀	29
[그림 6] 색상 및 색조범위 범주화 예시	29
[그림 7] 제주도 지리적 위치	34
[그림 8] 제주도 토색 유형 분포도	35
[그림 9] 식생자원 분포의 특징	36
[그림 10] 현대주거경관 색채조사 대상지 선정	44
[그림 11] 직접측색과 간접측색의 방법 (좌, 우)	45
[그림 12]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key map	49
[그림 13]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현황사진	49
[그림 14] 제주시 환경면 신창리 key map	52
[그림 15] 제주시 환경면 신창리 현황사진	52
[그림 16] 서귀포시 법환동 key map	55
[그림 17] 서귀포시 법환동 현황사진	55
[그림 18]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key map	58
[그림 19]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현황사진	58
[그림 20] 캔트랜즈 경관현황사진	76
[그림 21] 히가시 차야가 현황사진	83
[그림 22] 히가시 차야가 주변 주택가 현황사진	84

논문개요

근대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획일화된 지역경관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자연,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경관색채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이 가진 고유한 색채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 계획 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개방법론을 제안한 후, 선정된 연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이행하여 방법론의 중요한 관점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색채계획과 지역색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여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색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관색채계획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연구 대상지에 구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관색채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방법론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제주도로 정하였다. 제주도는 자연,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그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풍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시각적 조화로움, 전통적 경관의 배려가 결여된 경관을 가진 상황이다. 제주다운 풍경을 되찾는 것에 주력하여 경관색채계획의 방법론을 이행한 결과 수립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색을 형성한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추출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기후, 지리적 위치, 지형지세, 토양과 같은 풍토적 요소와 역사, 고유한 생활양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선정배경이 되어야 한다.

풍토, 문화적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대상지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춘 요소 선정이 가능하기 가능하며, 지속적 관점을 가진 색채계획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스템적 사고의 관점에 근거하여 자연경관요소, 현대주거경관요소, 전통문화경관요소, 역사문화경관요소 간 관계성을 파악하는 분석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관색채계획 시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분과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한 색채를 분석할 때에는 색채의 범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및 색조범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할 시 색채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색채기준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관점은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일부 분 시공간적 조건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속적 관점을 가진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I. 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때 도시에서는 급격하게 진행된 개발의 물결을 타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한 수단으로서 색채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강하고 화려한 색채의 포화상태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도시가 가진 본 모습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정체성 상실과 심각한 전통의 파괴 등의 문제를 겪으며 지역의 자연과 오랜 시간 쌓여 온 역사에 기반한 경관과 조화하는 색채가 최적의 색채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프랑스의 색채학자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ippe Lenclos)의 색채 지리학론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60년대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 역사와 전통이 인공적인 건축물에 색채로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연구하였다. 2000년대 직전 그의 이론은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색의 개념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색채를 계획하는 것은 도시를 상징하는 특정한 색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도시경관의 색채를 계획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의 관련 연구에서는 지역경관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실제로는 적용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도 하였다. 도시정비를 위한 경관계획을 전개하며 외국의 배색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타 지역에서 개발된 매뉴얼을 벤치마킹하여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스스로가 가진 색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7년 건설교

통부에 의해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경관색채계획 시 요구되는 방법과 관점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 국내의 경관색채계획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관색채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거쳐, 연구 목적과 범위에 맞게 기본방향을 구성한 후 색채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색에 주목하여 경관색채를 계획한 연구들의 경우 경관색채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지역색 색채현황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색채기준을 제안한다. 지역색에 기반한 경관색채계획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ippe Lenclos)의 지역색 개념에 뿌리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색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이 모두 달라, 지역색으로 추출하는 항목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며, 지역색 추출 및 분석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색에 관련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및 기본방향 설정 과정을 통해 지역색에 기반한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의 물결을 타고 무분별하게 남용된 색채로 인해, 제주의 경관은 자연과의 시각적 조화로움이 결여되었으며 제주만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제주만의 고유한 색을 드러내는 뚜렷한 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한 독특한 지형과 토양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만의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를 대상지로 삼아, 제

주다운 풍경이 물리적 경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지역색 개념을 토대로 전개되는 경관색채계획의 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색을 기반으로 경관색채를 계획할 때의 전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에 대해 기술할 것이며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전개방법을 토대로 실제 색채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한다.

2장에서는 연구 방향 설정의 기본적 배경이 되는 경관색채계획과 지역색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경관색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경관색채의 개념, 경관색채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관점, 전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색과 관련하여서는 개념 및 지역색을 구성하는 요소, 지역색을 기반으로 한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3장에서는 문헌연구와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게 대상지 고찰,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색채계획안 제안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구축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대상지를 중심으로 색채계획을 진행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전개방법론의 과정과 4장의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한 방법론의 의의를 종합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의 전개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이론연구	방법론의 구축	실증연구
<p>경관색채계획</p> <p>경관색채의 개념 경관색채계획의 관점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p>	<p>대상지 고찰</p> <p>-대상지의 자연, 인문환경특성 고찰 -대상지의 상위계획 지침 고찰</p>	<p>경관색채계획</p> <p>구축한 방법론을 대상지에 적용하여 경관색채계획 수행</p>
<p>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p> <p>지역색의 개념 지역색 구성요소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p>	<p>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p> <p>-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경관유형에 따른 분류 -조사범위 및 방법 명시 -측색: 색채 데이터 수집 -지역색 요소의 색채정보 구축 -지역색 요소 간 관계분석</p>	
	<p>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p> <p>-지역색 요소의 색채정보 구축 -지역색 요소 간 관계분석</p>	
	<p>색채계획안 제안</p> <p>-색상 및 색조 범위의 선정 및 제안</p>	

[그림 1] 연구의 흐름

Ⅱ. 이론적 배경

A. 경관색채계획

1. 경관색채의 개념

경관(landscape, 景觀)의 사전적 정의는 눈으로 보았을 때 한 번의 조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사물, 즉 눈에 띄는 경치의 특색을 말한다. 경관의 개념은 경관에 관해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류순호(2000)의 저서에 의하면 ‘경관’은 15세기부터 화가들이 농촌 풍경을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어떤 지역의 경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경관은 ‘풍경’과 ‘경치’의 개념과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임승빈(1991)은 경관의 일차적인 개념은 ‘보여 지는 풍경’이지만, 이차적인 개념은 보여 지는 풍경에 내재한 자연 및 인공환경과 인간의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모두 함축한다고 언급하였다. 조세환(2010)의 경우 경관은 시지각적 차원을 넘어서며 변화와 진화의 의미가 담긴 포괄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가람(2012)은 특색 있는 풍경을 가진 지역이나 지리학적 특성을 경관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자연이나 인공의 상태를 넘어서 사람의 판단이 더해진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경관은 단순히 눈에 보여 지는 요소들이 아니라, 시지각적 주체의 반응과 판단이 개입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관을 형성하는 지배적 요소인 건축물의 크기나 형태와 함께 색채는 경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

의 색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상을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준다.(권영걸, 2002) 경관색채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의 서구 도시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경관색채의 발전 단계에 대해 195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 이석현(2008)이 정리한 바로는, 경관색채는 자연색채의 시대로부터 시작한다. 안료의 한계로 자연소재를 중심으로 경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 색 안료가 대중화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슈퍼그래픽 운동의 영향으로 도시에서 색채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표현의 욕구가 증대되며 다양성의 시대를 맞은 이후 자본의 침체기와 대중화의 시대를 다시 거치며 2000년대에는 쾌적하고 차별한 색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간을 위한 도시이론과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ippe Lenclos)의 색채지리학 개념의 확산과 함께 도시정비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된 결과이다.

현대도시가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듯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경관색채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경관색채의 개념을 정리하면, 경관색채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담은 동시에 역사·문화적 요소 및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의식을 나타내는 복합적 특성을 가진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경관색채계획의 관점

경관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변화한다. 경관은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함축하는 것이며, 경관색채는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을 통해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구성원의 판단과 행동을 담고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경관색채를 단순히 미적 혹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한시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관색채계획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일홍, 정두용, 오민근, 이석현, 윤진욱(2007)은 경관색채를 계획함으로써 첫째, 도심경관의 개성이 향상되고, 둘째, 경관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셋째, 경관요소들 간 관계성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즉, 경관색채 계획 시에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의 풍토가 반영된 색채성향을 고려해야 하며 소재와 형태, 높이 등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경관디자인은 기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요인이 관계된 결과임을 말하며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자연, 자연과 사람, 사람과 문화, 문화와 역사 및 풍토 등의 관계성을 색채로 정리,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선민, 이민석(2007)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 도시경관의 색채의미를 통해 경관색채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도시색채는 도시의 기조색으로서 인간에게 커다란 자극원인 환경색채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한 나라나 민족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후, 풍토에 따른 자연경관, 지역에서 산출되는 건축 재료로 인한 고유색이 가장 이상적인 색채로 자리 잡는다는 관점이다. 둘째, 도시가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억임을 근거로 들며 도시의 색채는 형성배경, 역사적 의미, 지역적인 특성, 거주민의 의식 등 다양한 관점이 결부되어 장소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요소를 보전하는 가운데 색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

에 의해 파악된다는 시스템적 세계관을 근거로 들며 도시의 색채가 건축의 개별적 가치로서 파악되기보다 전체성에 근거한 계획의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색채를 함축적이고 독립된 존재로서 결정하지 않고, 도시를 형성하는 질서체계 내에서 광역적인 접근으로 계획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경관색채계획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풍토가 반영된 고유한 색채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도시가 가진 시각적 요소 외에도 역사, 구성원들의 의식 등 도시에 내재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색채가 도시의 개별적 부분을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닌,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방법을 규정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계획, 2009)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경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기본경관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1단계는 경관 현황조사로, 도시의 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2단계는 경관 기본구상을 목표로, 도시 경관미래상 및 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는 경관계획의 단계로, 경관축, 경관유형, 경관권역별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경관관리의 대상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관리계획이며, 5단계는 단계

별 추진, 행정 및 법 제도 개선을 정하는 실천계획의 단계이다.

<표 1>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출처: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경관계획, 발언, 2009 재정리)

단계별 목표	주요 내용
1단계: 경관 현황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대상 구분 -대상지개발 계획현황 -경관특성 분석 -경관유형
2단계: 경관 기본구상	-전체 -관리방향 -주요내용
3단계: 경관계획	-경관기본계획 -부문별경관계획
4단계: 경관관리	-경관관리계획 -경관요소별 관리방침
5단계: 실행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추진전략

경관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계획의 4단계 과정인 구성요소별 경관설계 지침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다. 경관색채는 지역의 색채이미지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경관권역별, 건축용도별, 시설유형별로 사용색의 범위와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색채표기는 먼셀 또는 **MCS** 등 국제 표준규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경관색채계획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아래 <표 2>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할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관색채의 개선을 목표로 색채계획을 수행하였다.

<표 2>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에 관한 기존연구

구분	연구자 (시기)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
1	문정민, 김영환, 장동국 (2006)	1. 색채경관 현황분석 2. 경관색채계획의 목표 3. 경관색채계획 기본구상 4. 경관색채 디자인지침
2	김윤희, 이명희 (2009)	1. 경관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2. 색채개선 사례분석 3. 색채계획 기본방향 및 인공색채 기준 선정
3	김미영 (2010)	1. 경관색채계획을 위한 상위계획 및 사례분석 2. 도시디자인 및 경관색채에 관한 지역주민 의식 조사 분석 3. 도시경관 자원 및 색채현황 분석 4. 색채계획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4	문선욱 (2011)	1. 환경색채계획 사례조사 2. 대상지 현황색채 분석 3. 용도지역별 색채디자인 방향 제안 4. 색채 팔레트 제시
5	이석현 (2011)	1. 기획: 대상지 경관 현황 조사 2. 계획: 거주민 특성, 경관색채 분석, 색채추출 및 배색방안 제시 3. 설계: 대상지 조닝계획에 따른 건축물, 시설물 등 디자인 작성
6	문선욱 (2012)	1. 상위계획 조사 2. 지역민 의식, 색채현황 분석 3. 기본계획 구상 4. 경관색채계획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안
7	김현선 외 4 (2012)	1. 사례조사 2. 대상지 색채현황분석 3. 색채계획 기본방향, 디자인 컨셉 설정 4. 색채계획: 색채추출
8	이상희, 박연선 (2013)	1. 대상지 색채 현황조사 및 분석 2. 거주민 선호색채 조사 및 분석 3. 대상지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설정
9	이진숙 외 3 (2013)	1.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3. 색채가이드라인 제작
10	강소연 (2014)	1. 색채경관 현황분석 2. 디자인 컨셉 및 색채범위 제안 3. 환경색채디자인 제안, 시뮬레이션 적용
11	문은배 외 3 (2014)	1. 사례조사 2. 연구대상지 현황분석 3. 색채적용 계획분석 4. 컨셉 기획 5. 색채 팔레트 및 도면작성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마다 전개방법 상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경관색채 현황조사 및 현황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기본구상을 통해 방향을 수립한 후, 결과적으로 색채기준이나 팔레트를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김윤희, 이명희(2009), 김미영(2010), 문선욱(2011), 김현선 외4(2012), 이진숙 외3(2013), 문은배 외3(2014)의 연구들은 선정한 대상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국내외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김미영(2010), 문선욱(2012)의 경우 대상지의 경관색채 상위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관색채의 전개방법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의 단계별 과정에 근거하여 경관색채계획에 관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경관 색채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단계, 기본 전제와 방향에 대한 구상 단계, 연구범위에 따른 용도별, 구역별, 부문별 색채기준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다. 연구의 목표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상위계획 및 국내외 사례조사 과정의 포함 여부이며, 색채기준 제안 시 색상 및 색조 범위, 색채 팔레트 제시, 배색 유형제시도 목표한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1. 지역색의 개념

지역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표면의 범위를 가리키며 지방 또는 지구와 동

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일정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 구획되어진 특색 있는 지구를 말한다. 또한 자연과 인문의 양 현상이 혼연히 조화된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은 실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추상적인 지표의 개념이며,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역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프랑스의 색채학자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ippe Lenclos)의 ‘색채지리학’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랑클로(1999)는 적갈색의 따뜻한 색조로 특징지어지는 프랑스 북부의 풍경과 검은색, 흰색, 회색이 지배적인 일본 교토의 풍경 사이에 존재하는 색채 범위의 확연한 차이를 느낀 것을 계기로 색채지리학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랑클로가 유년시절을 보낸 파드칼레의 주거지는 습한 땅에 형성되어 선명한 주황색 타일과 붉은 벽돌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식물들의 초록색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통가옥은 흰색 창호지를 바른 미서기창과 회색 기와, 어두운 빛깔의 고색 나무 벽이 대비를 이루는데, 그는 이러한 고유색의 근원을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도가, 불교 사상의 양과 음, 서예의 미학인 흰색과 검은색, 이를 통틀어 표현되는 채움과 비움이 건축언어의 기원이 된다고 하였다. 랑클로의 두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지리적, 지형적 환경이나 수질 환경, 빛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지역민들의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에 기인한 고유한 색채가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색, 곧 지역색임을 알 수 있다.

〈표 3〉과 같이 지역색 개념을 고찰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문선욱(2011), 문은배, 최현정(2014), 정송이, 이명희(2014), 박연선, 이지영(2014)은 ‘풍토’, ‘기후’, ‘문화’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3> 지역색 개념을 고찰한 기존연구

연구자(시기)	지역색 개념 정의
이지혜(2010)	지역별로 개성 있게 형성된 색채. 한 국가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며, 지리적 특성 (기후풍토, 자연환경)과 문화적특성 (문화, 종교, 사상)으로 알수 있는 색
문선욱(2011)	각기 다른 토양과 문화를 지닌 지역마다 지배적으로 지각되는 기초 색. 환경과 조화하며 형성한 자연스러운 경관의 색
문은배, 최현정(2014)	일정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토, 기후에 따라 형성되어진 돌, 나무, 흙, 하늘 등의 색으로서, 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선호되는 색
정송이, 이명희(2014)	각기 다른 기후와 토양, 문화적 요인과 지역구성원들의 색채에 관한 의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관의 색
박연선, 이지영(2014)	각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기후풍토에 맞는 재료들로 형성되며 지역의 자연에 기초한 풍토색

2. 지역색 구성요소

랑클로는 1960년대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고유 색채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색계열로 확실하게 지각되는 기초색을 기록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다양한 나라들의 지역 전통과 역사, 지리적 환경과 기후 등이 주거 건축물의 색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를 통해 지역색은 교류가 없고 소재가 한정되며, 집단의 유대의식이 강할수록 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현대에는 소재의 한정과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지역적으로 고유한 색채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기도 하여, 지역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다.

지역색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하여 문은배, 최현정(2014)은 자연적 혹은 인문적인 색채의 영향이 크며, 한정된 조건에 의지해 온 인간의 적응으로 인해 발전된 선호, 비선호, 이용이 빈번한 색, 금기색과 함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성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종합적인 지역색이 형성된다고 하였

다. 문은배, 최현정(2014)은 도시계획 경관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자연, 인공경관을 토대로 색채 계획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지만, 이에 비해 지역색 추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관요소 분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말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지역색을 구성하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세 가지 경관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 지역색 추출을 위한 경관요소 분류

(출처: 문은배, 최현정, 지역색 수집을 위한 경관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14 재정리)

자연, 인공요소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요소로, 일반 경관이라는 상위개념의 명칭 하에 분류하였다. 또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 분석을 목적으로 상징적 경관이라는 개념 하에서 역사문화, 이벤트, 인물중심 경관으로 분류되었다. 시간적 경관은 시간에 따라 지역경관의 변화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계절, 주야 경관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색 추출을 위한 경관유형의 분류나, 분석 과정의 가이드를 정하지 않고, 지역색 개념만을 토대로 지역색 구성요소를 추출한 연구들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역색 요소를 선정한 기존연구

연구자(시기)	지역색 구성요소
권진희(1999)	자연 색채: 토양, 바다, 식생 인문, 사회적 색채: 의, 식, 주생활의 색채, 금기어와 민요에 반영된 색채언어
김현선(2010)	자연환경: 산, 물, 하늘, 상징물 인공환경: 건축물, 거리, 시장, 광장, 공원, 시설물, 시각정보 인문환경: 전통문화 등
문선욱(2011)	역사문화재: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 상업지역: 중심상권 주거지역: 주거지
정송이, 이명희(2014)	자연경관: 원경, 중경, 근경 별 구분 인공경관: 건축물 지역민의 선호색채
박연선, 이지영(2014)	토양

지역색을 구성하는 요소를 선정,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각 연구마다 지역색 요소를 상이하게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선욱(2011)을 제외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자연요소를 지역색 형성요인으로 포함시켰으나, 그 하위 요소들은 연구마다 다르게 선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마다 대상지나 연구범위에 맞추어, “인공경관”, 의, 식, 주 생활이나 전통문화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경관”, 인간의 “색채의식” 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역색으로서 추출한 항목이 요소 혹은 이미지로 나누어지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권진희(1999), 박연선, 이지영(2014)은 환경이나 경관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색 요소를 선정하였지만, 문선욱(2011), 정송이, 이명희(2014)는 경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역색으로 보고 조사하였고, 김현선(2010)은 요소와 경관의 이미지를 혼용하여 지역색을 조사하였다.

3.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색채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경관이 지역색과 무관하게 색채를 남용함으로써 쾌적하지 못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를 계획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다음 <표 5>와 같이 기존연구들의 전반적인 색채계획 전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에 관한 기존연구

연구자 (시기)	색채계획 전개방법
권진희 (1999)	1. 고유색과 인공환경색채 조사 2. 문제점 파악 및 분석 3. 색채 팔레트 및 배색유형 제시
문선욱 (2011)	1.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한 지역색의 정체성 파악 2. 대상지 지역색 조사 및 분석 3. 색채 팔레트 제시
정송이, 이명희 (2014)	1. 지역성 관련 이론 고찰 및 사례조사 2. 대상지 지역색 현황 조사 3. 조사 내용 요약 4. 지역 경관색의 기본방향 제안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랑클로의 지역색 개념에 이론적 토대를 두어 대상지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선정하여 색채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색채 기준 제안에 앞서 조사한 지역색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도출해낸 문제점을 토대로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거나 색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 연구는 지역색 색채현황을 조사한 이후, 지역색을 분석 및 정리하고 색채기준을 제안하는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권진희(1999)의 경우 지역색 요소 간 비교분석의 과정 없이 대상지의 고

유색 특징을 바탕으로 색채 팔레트를 작성하였다. 주조, 보조색은 토양색, 강조색은 식생이나 바다 등의 색채에서 추출하여 배색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문선욱(2011)은 지역색 구성요소를 용도지역별 건축물로 분류한 후, 지역색 요소 간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색상 및 색조계열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지역색 분석결과와 상위계획에서 정한 색채팔레트의 색채를 중심으로 배색유형을 제시하였다. 정송이, 이명희(2014)는 색상 분포도를 비교하거나, 개별적인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가 조화로운지를 비교하며 조사한 지역색 요소를 요약하였다. 이후 색채계획의 기본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Ⅲ.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론 제안

A. 선행연구의 검토와 논점의 제시

1. 선행연구의 검토

이 단계에서는 전 장에서 살펴본 경관색채계획 전개과정의 틀을 토대로 선행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향상된 전개방법의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관색채계획의 전개과정은 경관의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과정, 색채계획 기본방향을 구상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색채 팔레트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외 사례조사 과정이나 상위계획 검토과정의 포함여부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지역색에 주목하여 경관색채를 계획할 때에는 경관색채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지역색 색채현황의 조사 및 분석과정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과정의 절차는 대상지 고찰,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조사, 색채계획안 제안으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전 장에서 살펴 본 지역색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 권진희(1999), 문선욱(2011), 정송이, 이명희(2014)는 지역색을 기반으로 대상지의 경관색채를 계획하였으며, 김현선(2010), 문은배, 최현정(2014)은 지역색의 추출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지혜(2010)는 지역색을 기반으로 공공시설물의 색채계획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박연선, 이지영(2014)은 지역색의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토양색을 수집하는 연구를 하였다.

지역색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권진희

(1999)는 지역색의 개념을 고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지역의 자연, 생활양식, 구성원의 의식 등 풍토, 문화에 기인한 다양한 요소를 지역의 고유색이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측색대상을 선정하였다. 크게 자연색채, 인문·사회적 색채로 나누어 각각 토양, 바다, 식생과 의, 식, 주생활의 색채, 금기어와 민요에 반영된 색채언어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색채계획 제안 단계에서 지역색의 분석과정 없이 조사한 지역색의 현황색채를 그대로 추출하여 인공경관의 색채기준으로 제안하였다.

김현선(2010)은 지역색의 개념을 고찰하지는 않았지만, 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지역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색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으로 대분류한 후 하위요소는 전문가 집단, 시민, 색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사례조사 단계에서는 해외의 도시 상징색과 상징색이 적용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에서 추출할 지역색 구성요소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지혜(2010)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색,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재료의 색으로 형성된 개성 있는 색을 지역색이라고 보았다. 국내의 사례조사 과정을 거쳐 지역의 고유한 주요색채와 조화하는 공공시설물의 색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색을 고려한 도시환경색채디자인의 중요한 관점 도출에 반영하고 있다.

문선욱(2011)은 한 지역의 경관을 바라보았을 때 지배적으로 지각되는 공통적인 색계열을 지역색이라고 보았다. 해외 각지의 지역색 사례와 국내 환경색채계획의 디자인사례를 통해 지역색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지역색 구성요소를 용도지역별 건축물로 분류한 후, 지역색 요소 간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색상 및 색조계열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지역색 분석결과와 상위계획에서 정한 색채팔레트의 색채를 중심으로 배색유형을 제시하였다.

정송이, 이명희(2014)는 지역색을 각기 다른 기후와 토양, 문화적 요인과 지역구성원들의 색채에 관한 의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관의 색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례조사 단계에서는 지역경관 구성에 도모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지역 경관색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지역성과 지역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상지의 환경을 고찰함에 있어 기후, 지형, 역사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역색 구성요소는 자연경관, 인공경관, 지역의 색채이미지와 주민의 색채의식을 선정하여 색채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조사한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분포도를 비교하거나, 개별적인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계획의 기본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박연선, 이지영(2014)은 각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재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경관의 색을 지역색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토양색을 오랜 시간 기후 변화를 겪으며 조성된 가장 대표적인 지역색 구성요소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은배, 최현정(2014)은 일정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토, 기후에 따라 형성되어진 돌, 나무, 흙, 하늘 등의 색으로서 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선호되는 색을 지역색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색으로서 수집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자연·인공적 경관, 상징적 경관, 시간적 경관으로 대분류한 후 상징적 경관은 역사문화적 경관, 이벤트적 경관, 인물중심 경관으로, 시간적 경관은 계절경관, 주야 경관으로 하위경관을 분류하였다.

<표 6> 지역색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내용 검토

구분	지역색 개념 정의	대상지 고찰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조사	색채계획 제안
연구자 및 내용	권진희(1999),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조화 방법 연구				
세부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색채 (토양, 바다, 식생) -인문, 사회적 색채 (의, 식, 주생활의 색채, 금기어와 민요에 반영된 색채언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 보조색은 토양색채에서 추출하고 강조색은 4계절의 식생이나 바다 등의 색채에서 추출
연구자 및 내용	김현선(2010), 서울의 지역색 추출에 관한 연구				
세부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산, 물, 하늘, 상징물 -인공환경: 건축물, 거리, 시장, 광장, 공원, 시설물, 시각정보 -인문환경: 전통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해외의 도시상징색과 환경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시사점 도출 	-
연구자 및 내용	이지혜(2010), 지역색을 고려한 도시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세부내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색,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재료의 색으로 형성된 개성 있는 지역의 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지역의 고유한 주요색채, 전통색과 조화하는 공공시설물 색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분석 결과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지역색을 고려한 환경색채계획의 기본 방향 제시
연구자 및 내용	문선옥(2011), 지역색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성군을 중심으로-				
세부내용	한 지역에서 공통적인 색계열로 지각되는 기초색을 지역색이라는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행정구역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개요, 대상지의 상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용도지역별로 분류한 건축물 (역사문화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지역색 분석: 용도지역별로 주조를 이루는 색상계열과 색조계열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지역색의 정체성 파악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요소들의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 및 색조계열과 상위계획에서 정한 색채팔레트의 색채를 중심으로 배색유형을 제시
연구자 및 내용	정송이, 이명희(2014),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관색 연구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세부내용	각기 다른 기후와 토양, 문화적 요인과 지역구성원들의 색채에 관한 의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관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을 드러내는 기후, 지형, 역사 중심의 대상지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지역경관색채: 자연경관, 인공경관, 지역의 색채 이미지, 주민 색채의식 지역색 분석: 조사한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분포도 비교 혹은, 개별적인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를 중심으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지역성과 지역색과의 관련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한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현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공경관색채 선정의 기본방향을 제시
연구자 및 내용	박연선, 이지영(2014), 지역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한국 지역색 조사 • 분석 -자연공원 토양색 중심으로-				
세부내용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재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경관의 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토양 	-	-
연구자 및 내용	문은배, 최현정(2014), 지역색 수집을 위한 경관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세부내용	지역의 풍토에 따라 형성되어진 돌, 나무, 흙, 하늘 등의 색으로 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선호되는 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 구성요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인공적 경관 -상징적 경관 (역사문화적 경관, 이벤트적 경관, 인물 중심 경관) -시간적 경관 (계절경관, 주야경관) 	-	-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향상된 전개방법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색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지역색 구성요소를 선정방법이 달라지며, 연구마다 매우 상이한 성격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7>과 같이 기존 연구들이 지역색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지역색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총 5개의 연구가 지역색을 지역의 풍토,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여 형성된 색채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색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대상지의 환경특성을 고찰하여 풍토,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요소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현선(2010)의 경우, 지역색을 도시를 상징하는 요소의 색채로 보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 시민, 색채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표색을 선정하였다. 문선욱(2011)은 지역의 경관에서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기초 색채를 지역색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색 색채를 수집하기 위해 인공경관을 용도지역별로 분류하였다.

<표 7>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1

시사점	연구자 (시기)	지역색을 바라보는 관점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방법
1	권진희 (1999)	지역색을 지역의 풍토,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여 형성된 색채로 보는 관점	대상지의 풍토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요소 선정을 위해, 대상지의 환경특성 고찰 통해 선정.
	이지혜 (2010)		
	정송이, 이명희 (2014)		
	박연선, 이지영 (2014)		
	문은배, 최현정 (2014)		
	김현선 (2010)	도시를 상징하는 요소의 색채로 보는 관점	전문가 집단, 시민, 색채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선정
	문선욱 (2011)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기초 색채로 보는 관점	용도지역별로 분류한 건축물

둘째, 색채계획을 제안하는 데에 지역색 분석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표 8>을 보면 분석과정의 유무와 분석방법에 따라 색채계획 제안방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권진희(1999)는 지역색의 분석과정 없이 조사한 현황색채에서 그대로 색채를 추출하여 인공경관의 색채기준을 제안하였다. 문선욱(2011), 정송이, 이명희(2014)의 경우 조사한 지역색 요소 간 분석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지역색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색채계획안을 제안하였다.

<표 8>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2

시사점	연구자 (시기)	지역색 분석 과정	색채계획 제안
2	권진희 (1999)	-	고유색에서 추출한 색채를 인공경관의 주조, 보조, 강조색으로 제안.
	정송이, 이명희 (2014)	조사한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분포도를 비교하거나, 개별적인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색상 및 색조를 중심으로 분석	조사한 지역색 요소들의 색채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환경색채 선정의 기본방향을 기술
	문선욱 (2011)	지역색 요소 간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색상 및 색조계열을 분석	지역색 요소들의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 및 색조계열과 상위계획에서 정한 색채팔레트의 색채를 중심으로 배색유형을 제시

2. 방법론의 기본방향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에 관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도출해낸 시사점을 토대로,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할 방법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정립시킬 가치가 있는 기존의 관점에 주목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적 기본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첫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으로 지역색 개념을 정립하고, 정립한 관점이 연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를 과정을 체계화한

다.

다수의 연구들이 장 필립 랑클로의 색채 지리학론에 근거하여 풍토 문화적 요인으로 형성된 색채를 지역색으로 보았다. 이 관점은 협의적으로 지역색 개념을 바라본 연구들에 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지역색 구성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지역의 고유한 역사 등 다양한 개념의 의거하여 나타나는 지역색을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경관색채계획 전개과정에 지역색 분석단계를 포함하며, 지역색 요소 간 관계 파악을 주요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역색 분석방법을 구축한다.

지역색 분석과정이 부재한 경우, 타 연구에 비하여 색채기준 제안 시 고려하는 사항이 다소 단순하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색 분석과정을 거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색 요소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채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색채가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향상시켜 지역의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근거하며, 경관색채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B.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 구축

이 단계에서는 전 절에서 설정한 방법론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전개절차의 세부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대상지 고찰

대상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대상지를 중심으로 계획된 상위지침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지를 파악한다.

풍토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지역의 고유색을 찾기 위해서는 선정된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고찰하는 과정이 기본이 된다. ‘풍토’는 바람 풍(風)과 흙 토(土)를 사용하여 기후와 토양의 의미를 내포하며, ‘문화’는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에 인위적인 것을 가미한 것을 뜻한다. 또한 지역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은 자연과 인문의 양 현상이 조화된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자연환경특성과 인문환경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풍토, 문화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특성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위치, 기후조건, 지형, 지질(토양), 식생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비중이 크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연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찰한다. 인문환경특성은 자연요소 이외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요소들의 특성을 고찰한다. 지역의 형성과정, 역사, 의식주 생활, 건축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만의 독특한 인문적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을 조사해야 하며 인문요소 조사를 위한 또 다른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풍토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특성으로 고찰해볼 내용을 한정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상위계획은 경관 색채에 관한 지침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가.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본 연구에서 ‘지역색 구성요소’는 지역색을 이루는 요소들로 측색 대상을 일컫는다. 지역색 구성요소의 선정은 대상지의 자연, 인문적 환경특성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배경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짓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선정한다. 요소 선정 이후에는 경관색채계획 시 기본이 되는 색채현황 데이터를 수월하게 구축하기 위해, 경관유형의 체계 안에서 지역색 구성요소가 구성되도록 한다.

지역에는 자연과 사람에 의해 생성된 인공적 요소가 공존하므로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대분류 하여 하위요소들을 구성한다. 자연경관요소는 풍토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토양, 식생을 포함하며, 지역의 중요한 자연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해안지역은 바다의 비중이 크므로 바다를 지역색 구성요소로 선정한다. 인공경관요소와 같은 경우, 풍토 문화적 요인에 의거한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인공건축물, 시대문화의 총체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문화재와 같은 요소들을 선정한다. 인공환경을 이루는 경관요소는 지붕, 처마, 우수홈, 평지붕 옥상 등 지붕 관련 건축요소, 외벽, 기둥, 난간, 수직입면 강조요소 등 벽 관련 건축요소, 물탱크등과 같은 기타 부속 요소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지에서 관찰 되는 모든 요소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전체적인 경관 특성에 영향이 적은 미세한 요소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대상지의 색채특성 분석 시 혼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여 지는 모든 건축물 구성요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요소와 각 인공

경관에서 주요한 건축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기준으로 부합되는 요소만을 선별하고자 한다.

나. 색채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지역색 요소를 측색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색채 조사대상 중 시공간적 범위의 한정성이 필요한 요소의 경우, 색채 조사범위를 명확히 명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관요소에서 지배적으로 보이는 색채를 측색하기 위해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색채를 대조하는 육안 대조법을 조사방법으로 제안한다. 콘크리트, 석재, 벽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는 가까이에서 보면 다양한 색 입자로 이루어져 여러 가지 색채가 관찰되지만 일정거리 이상에서 보면 단일한 색으로 관찰된다. 색이 균일한 재료의 경우 육안대조법 보다도 **Minolta CR-400**과 같은 휴대용 측색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는 극히 좁은 면적의 색을 추출하기 때문에 재료의 전체적인 색감 재현이 힘들다. 측색도구는 다음 [그림 3]과 같은 **NCS INDEX ORIGINAL** 색 표본을 사용할 것이다. 맑은 날 동일 시간대에 측색을 실시하여 시감 색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색채 조사기간과 조사시간대를 설정한다.



[그림 3] NCS INDEX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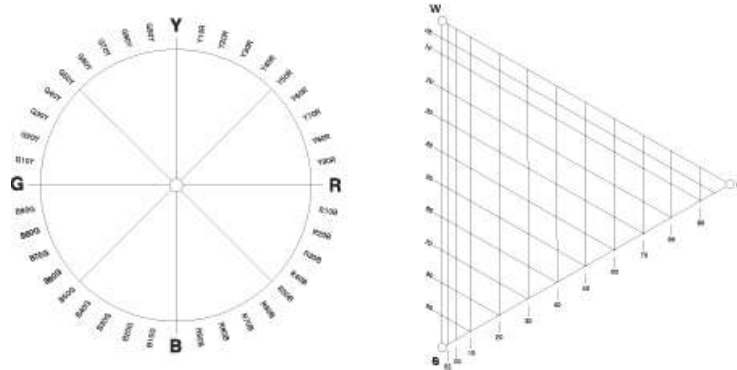
다. 지역색 요소의 색채정보 구축

대상지에서 조사된 색채를 **NCS** 디지털 팔레트를 이용하여 단순한 색상표의 색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색채정보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 4] NCS 디지털 팔레트 NCS_PALETTE_2.0_CRE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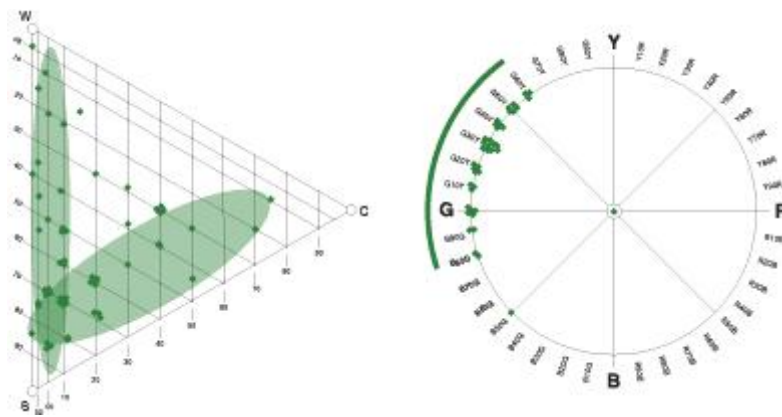
NCS 디지털 팔레트를 통해 수집된 색채를 단색팔레트로 나타내고, [그림 5]와 같은 **NCS** 색상환 및 색조틀을 사용하여 경관구성요소별 색채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지의 지역색 색채범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NCS 색상환 및 색조틀

라. 지역색 요소 간 관계분석

관계 분석 과정을 통해 지역색을 구성하는 경관요소 간 색채의 속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색상 및 색조의 분포 범위를 범주화하여 표시함으로써 요소의 일반적인 색상 및 색조경향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으며, 요소 간 관계의 비교분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6] 색상 및 색조범위 범주화 예시

본격적인 관계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지역색 요소 간 색상과 색조 범위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한다.
2. 지역색 요소 간 색상 사용 수의 많고 적음, 색조범위의 유연함과 절제됨을 비교한다.
3. 구조, 보조, 강조색 단위로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및 색조 관계를 요약 정리하여, 색채 기준 제안 시 더 용이하도록 한다.

3.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정한 사례조사의 취지는 색채계획 제안 시 사례조사 내용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례조사의 목적은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이 우수하게 이루어진 지역 사례의 색채계획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 대상지의 선정은 연구에서 정한 대상지의 지역색 구성요소를 선정된 뒤 이에 상응하는 지역색 구성요소를 가진 지역을 선정한다. 이로써 대상지의 색채기준 제안 시 우수한 사례지역의 색채계획 원리를 고려할 수 있다.

사례지역의 색채계획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지의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의 방법적 틀을 그대로 적용한다. 방법적 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지역색 구성요소가 지역의 인공경관과 어떠한 색채계획원리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상지 고찰부터 시작하여 본 연구에서 정한 색채계획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색채계획 원리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한계가 있어, 분석방법만을 적용하여 사례지역을 분석할 것이다. 육안으로 측색을 하지 못하는 대신 촬영시간이나 촬영기법이 크게 상이하지 않는 사진이미지를 대상으로 색채정보를 구축하고, 요소 간 관

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4. 색채계획안 제안

색채계획 제안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지역색 색채현황 분석내용을 토대로 색채기준을 제안한다.

현재 개선이 가능하며 추후 가이드가 필요한 지역색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색채를 계획한다. 지역색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른 경관 요소들과의 관계비교를 통해 색채기준을 제안한다.

둘째, 사례지역 색채계획의 원리를 토대로 제안한다.

연구 대상지의 지역색 구성요소와 유사한 지역색을 가진 타 지역의 색채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찾아내어 반영한다.

셋째, 대상지역의 상위계획지침 내용을 반영한다.

대상지의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상위계획지침의 적용사항을 검토하여 연구범위에 부합하며 지역색 기반 색채계획 시 꼭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반영한다.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조, 보조, 강조색 별로 색상과 색조의 범위를 지정한다. 고려사항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색채기준을 선정하고 **MCS** 색상환 및 색조 틀에 선정 범위를 표시한다.

색채계획안을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의 전개방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 제안

구분	절차	목적	세부 방법
1	대상지 고찰 1.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 고찰 2. 대상지의 상위계획 지침 고찰	-풍토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상지 고찰 -대상지의 수립된 색채 지침 고찰	-자연환경은 지리적 위치, 기후조건, 지형, 지질(토양), 식생을 중심으로, 인문환경은 지역의 역사와 풍토적 요인에 영향을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 -대상지의 수립된 색채지침 고찰
2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3.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4. 경관유형에 따른 분류 5. 조사범위 및 방법 명시 6. 측색: 색채 데이터 수집 7. 지역색 요소의 색채정보 구축 8. 지역색 요소 간 관계분석	-대상지가 보유한 고유한 지역색 요소 도출 -지역색 요소의 색채현황 정보 구축 -지역색 요소 간 색채특징 비교분석	-대상지 고찰 내용에 기반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짓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선정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나누는 경관유형의 체계 하에서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자연경관요소는 토양, 식생과 같은 풍토요소를 기본으로 선정하며 지역의 중요한 자연요소를 추가적으로 선정하며, 인공경관요소는 역사, 풍토요인에 의거한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 -인공경관요소는 건축물 구성요소로 다시 한번 요소 세분화 함 -대상지에서 조사된 색채를 NCS 디지털 팔레트를 이용하여 단순한 색상표의 색으로 재창조 -NCS 색상환 및 색조들을 사용하여 경관 구성요소별 색채특징 기술 -색상 및 색조의 분포 범위를 범주화하여 표시 -분석과정: 1. 지역색 요소 간 색상과 색조 범위에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2. 지역색 요소 간 색상 사용 수의 많고 적음, 색조범위의 유연함과 절제됨을 비교 3. 주조, 보조, 강조색 단위로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및 색조 관계를 요약 정리
3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9. 지역색 요소의 색채정보 구축 10. 지역색 요소 간 관계분석	-우수한 사례지역 색채계획 원리 및 시사점 도출	-사례 대상지의 선정은 연구에서 정한 대상지의 지역색 구성요소를 선정한 뒤 이에 상응하는 지역색 구성요소를 가진 지역을 선정 -사진이미지를 대상으로 색채정보를 구축하고, 요소 간 관계를 비교분석
4	색채계획안 제안 11. 색채계획 기본방향 설정 12. 색상 및 색조 범위의 선정 및 제안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안	-색채계획안 제안 시 고려사항: 1.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분석한 내용 2. 사례지역 색채계획의 원리 3. 대상지역의 상위계획지침 -주조, 보조, 강조색 별로 색상과 색조의 범위를 지정

IV. 지역색을 기반으로 한 제주도 주거경관 색채계획

A. 대상지 고찰

본 연구의 대상지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이다. 본 절에서는 크게 자연환경, 인문환경으로 나누어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은 제주의 지리적 위치, 기후조건, 지형, 지질, 식생을 중심으로, 인문환경은 제주의 독특한 지리환경, 기후적 특성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와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대상지 개요

가. 자연환경특성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6° 08' 에서 126° 58' 에 해당되며 동서로 약 73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북위 33° 06' 에서 34° 00' 까지 약 31km에 달한다. 지리적으로 목포에서 약 145km, 부산에서 약 268km 떨어져 있으며 해안선 총 길이는 419.95km로, 전국의 약 3.45%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휴양 관광지이자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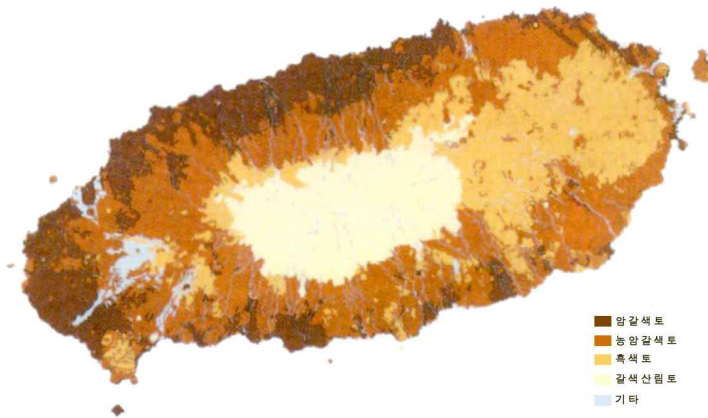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지리적 위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u.go.kr>)

제주도는 기후 분류에 따르면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아열대 기후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대기후대와 아열대기후대의 전이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상청(2009)에 따르면 미국의 저명한 기후학자인 트레와다(**Trewartha**)가 정의한 아열대 기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제주도는 일부 산간지역이나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이미 아열대기후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열대 기후는 열대와 같은 여름을 가지지만 겨울철은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해륙분포와 해류의 영향으로 다습, 온난한 기후를 나타내며, 일교차가 내륙지방에 비해 작고 지표 및 지중 온도가 높아서 겨울철 원예작물의 원동재배 및 아열대과수의 시설재배가 가능하다. 제주지방과 한반도 내륙지방의 기후요소를 비교하면 기온이 높은 점 외에도 강수량이 많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특징이 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하며, 장축 방향으로 길게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가파르지 않아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편이다. 지형적으로 해발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남북사면은 5° 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368개에 달하는 원추형 모양의 기생화산이 산 정상에서 해안까지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토양은 5목 63통으로 분류되며 화산회

토에 속하는 토양통은 36개로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암갈색토를 제외한 세 유형의 토양이 화산회토로 취급되는데, 농암 갈색토는 14개통, 흑색토는 16개통, 갈색 삼림토는 6개통의 토양을 포함한다. 제주시에는 17%의 암갈색토, 41%의 농암 갈색토, 22%의 흑색토 및 14%갈색 삼림토가 전부 분포하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양은 농암 갈색토이다.



[그림 8] 제주도 토색 유형 분포도

(출처: 제주도,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간산지역 종합조사(자료집), 1994)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이 갖는 지형적 특성 및 해양의 영향과 화산섬이 가지는 독특한 지질로 인하여 제주도의 식물 다양성은 매우 풍부하다. 한라산이 고도별 기후 환경에 영향을 미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강수량 또한 지형의 영향으로 해안가 지역보다 산간 지역에 많은 양의 강수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2009)에 의하면 제주의 식물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 고지대에는 대륙계 식물이 다수 서식하며 중산간 일대는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갈수록 낙엽활엽수, 침엽수림, 관목림 지역이 차례로 분포하며 해안 지역은 상록 활엽수의 자생지이다.



[그림 9] 식생자원 분포의 특징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나. 인문환경특성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상 제주도는 8개 도 가운데 1개도에 지나지 않으며, 크기도 남한 전체 면적의 1.8%이다. 하지만 육지와는 다른 역사를 가지며, 이는 섬이라는 격리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온 생활사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의 인문환경특성은 제주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빌레못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미루어 약 7~8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벽신화인 3성 신화에서는 그저 태고에 한라산 북쪽 삼성혈이라는 땅 속에서 솟아난 세 을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세 을나가 벽랑국의 세 공주를 맞이하여 농목축업을 시작하고 뿌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가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4~5세기부터이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려 고종(1214~1259년 재위) 때부터 '탐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옛명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다. 탐라국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는 백제, 고구려, 신라와 각각 교역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제 멸망 뒤에는 고려 숙종 10년에 지방행정지로 편제됨으로써 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고려 원종 14년(1237)부터 몽골이 정벌되는 공민왕 23년(1374)까지 제주도는 약 100년 동안 원(몽골)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조선조에 이르러 태종 16년(1416)에 목사와 판관, 현감이 파견되고, 관아의 설치와 성이 구축되면서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또한 육지와는 격리되었으며 척박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조선왕조 약 500년 동안 중죄급 유배인의 귀양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군사기지가 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1948년 4.3항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관광 휴양의 적격지로 지목되면서 지금까지 개발과 보존의 욕구가 상충하고 있다. 제주도가 보유한 고유 자원이자,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역사 유적이 복원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관광성'의 대상으로만 가늠이 여기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의 생활모습 전반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화산' 과 '기후'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제주도에 돌과 바람이 많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에 돌이 많은 이유는 한라산의 화산활동에서 연유한 것으로, 제주 땅 대부분은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 전역에 있는 돌덩이들을 이용해 발담과 울담을 쌓아 생활하였고, 바다에 돌담을 쌓아 포구를 만들며 오랜 과정 동안 돌과 더불어 살면서 제주를 개척하였다. 제주는 풍세(風勢)가 큰 지역으로 강풍다풍(強風多風이) 분다. 이는 여름에 비해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며, 제주가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석다(石多)와 풍다(風多)의 영향은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데 특히 주거문화에서 험한 자연조건을 이겨낸 제주사람들의 지혜가 보여 진다. 이정

준, 전규엽(2014)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은 제주의 기후적 특성인 강한 바람, 다량의 습기, 강우가 반영된 방풍과 방습, 통풍 위주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 가옥의 대표적인 입면 특징으로 바람에 대응하는 17~20도 이하의 낮은 지붕각도, 중공간이 넓은 이중창호, 석재 방풍벽과 습기에 대응하는 기단형성과 개구부 맞배치를 들 수 있다. 현대에 지어지는 제주도 가옥은 발달된 건축기술과 내구성이 증대된 구성요소로 인해 입면의 변화가 많이 다양해졌지만, 일반적으로 초가형태의 전통주택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에서도 보이는 제주도 주택의 특징 요소로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개량된 지붕에도 나타나는 낮은 지붕, 현무암 석재에 시멘트를 섞거나 페인트 마감을 하여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 외벽, 새마을 운동 당시 보급되어 근래까지 주로 사용되는 철제창호의 개구부와 같은 요소가 있다.

2. 대상지 상위지침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온 고유한 문화를 드러내는 제주다운 풍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 및 관리계획안을 2009년 수립하였다.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크게 기본경관단위와 특정경관단위로 경관단위를 나누어 경관지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본경관단위는 해발고도에 따라 경관단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경관단위는 주요도로변,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으로 네 구역을 지정하였다. 경관단위의 유형 및 분류기준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주도 경관단위의 유형 및 분류기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재정리)

명칭 구분	기본경관단위			특정경관단위
	구분	해당지역	비고	
내용	경관단위 가	한라산	해발고도 600m 이상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경관단위 나	중간산	200m~600m	
	경관단위 다	중 산 간 / 시가지	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	
	경관단위 라	중 산 간 / 해안 / 시가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경계선	
	경관단위 마	해안 / 도서	부속도서 및 해수면	

전체 경관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수립한 사항으로는 부지조성, 좌향, 높이, 형태, 재료, 식생, 경관색채, 지역별 주요 조망점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할 지침사항은 “경관색채”이다. 경관색채에 관한 지침은 자연풍경의 빛깔과 자연재료의 색을 존중한 색채 계획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중 경관색채에 관한 지침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돌담색을 존중하고 자연이 돋보이게 인공물의 색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중 경관색채 지침 내용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발췌)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경관 색채	<p>경관색채 계획과 관리의 범위는 건축물(지붕, 건물 벽면, 대문), 옥외광고물, 기타 시설물(가로시설물, 보행자용 안내판, 대중교통 수단)의 재료색 및 도장색을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담과 어울리는 경관색채로 계획·관리 ○ 인공물의 색채를 관리하여 자연을 돋보이게 하며, 자연경관과의 색채조화 지향 ○ 다양한 색조화에 의한 경관색채의 전체성(totality) 지향 △ 자연의 주기와 풍겨울 반영하는 자연 본연의 색 존중 △ 해당지역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의 색조화에 의한 시각적 관계성 중시 △ 오랜 역사와 문화 의식 및 제주 이미지에 합당하며 제주민의 색채심리에 어울리는 색채의 개발 및 활용 △ 자연 소재의 색은 원소재의 천연색 그대로 사용 권장 ○ 원칙적으로 저채도 중·저명도 색채 사용 △ 지역별 전체 색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색채 활용의 유연성 권장 △ 건축물, 시설물 등의 바탕색 도장시 고채도의 색상은 퇴색·탈색되기 쉽고 오염되기 때문에 중·저채도 색상 권장 △ 건축물 외부 도장 주기는 약 5년이므로 5년에 1회 재도장 권장 X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지나친 원색의 색채 사용 지양 △ 고채도의 색상은 교통표지판, 공공안내판 등 주목성을 강화해야 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사용 권장 ○ 제주 경관색채를 기준을 ‘제춇빛’ 50가지 팔레트 제시 <p style="text-align: right;">(○:유도 △:권장 X:금지)</p>

B.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1. 지역색 구성요소 선정

전 절에서 파악한 대상지의 환경특성에 근거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색 요소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경관색채계획 시 기본이 되는 색채현황 데이터를 수월하게 구축하기 위해, 크게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로 분류되는 경관유형의 체계 하에서 하위요소로서 지역색 요소를 구성한다.

자연경관요소는 대상지의 자연환경 특성인 지리적 위치, 기후, 지형지세 및 지질과 식생을 고려하여 토양, 식물, 바다, 하늘을 선정한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사면이 바다이며, 화산활동에 의한 지질, 지형적 특성에 따른 독특한 토양색이 존재하고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고도별 기온분포에 따라 서식하는 식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양, 식생, 하늘은 경관계획 시 자연경관요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인공경관의 경우 다시 현대주거경관, 전통주거경관, 역사문화경관 세 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인공경관을 이루는 건축물 구성요소로 하위요소를 분류한다.

현대주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은 풍토적 요인으로 형성된 제주의 생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의 현 주거모습을 보여주는 현대의 가옥은 초가 형태의 전통주택을 개보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자연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입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기술의 발달과 재료의 변화로 가옥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전통적 주거경관을 보여주는 제주의 초가는 초원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적 초재(草材)인 새(茅)와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방풍을 위해 새 줄로 그물처럼 엮어맨 낮은 각도의 지붕과 석재벽이 건축적 특징이다. 역사문화경관요소는 후대에 계승, 상속될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현재에도 잘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요소를 선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재중 그 시대 문화의 총체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문화재 인 제주목 관아, 관덕정, 제주향교를 선정하였다. 세 문화재는, 사원건축이 중심이었던 고려시대와 달리 궁궐과 성곽, 성문,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이 발전한 조선시대의 소산이다.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된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으며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관청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준다. 관덕정(보물 제 322호)은 조선초기의 건축물로 주민과 병사들의 훈련과 무예수련을 목적으로 창건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누정 건축물이다. 제주향교(지방유형문화재 제2호)는 지방에서 유학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설립한 관학(관학) 교육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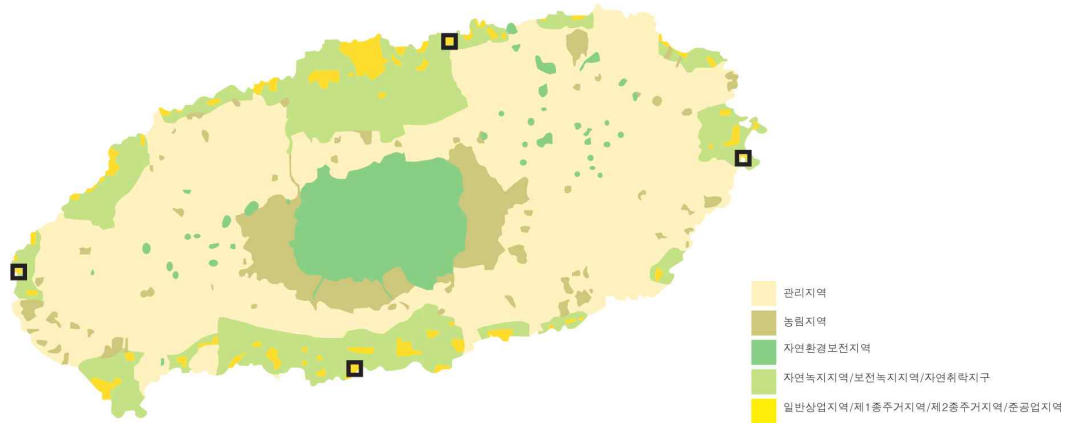
인공건축물은 건축물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여 하위적으로 다시 분류한다. 시각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 구성요소인 지붕, 외벽, 개구부에 속하는 대문과 창틀을 분석대상으로 주요 요소로 정한다. 또한 주거경관의 주요한 건축적 특징인 ‘돌담’을 포함시켰다.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외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둥’과 ‘보’를, 역사건축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전체적으로 강조색의 기능을 하는 ‘단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2. 색채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자연경관은 토양, 식물, 바다, 하늘로 하위요소를 구성하였다. 토양의 경우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제주도 전역에 걸쳐 모래, 흙, 송이의 샘플

을 채집한 권진희(1999)의 연구를 통해 토양색을 파악하고자 한다. 모래는 이호, 협재, 대정, 산이수동, 화순, 오봉, 서광, 성산, 종달리, 함덕, 삼양에서 채집하였다. 흙은 갈색토는 동귀-구엄-용흥, 암갈색토는 중문-오라-구좌, 흑색토의 경우 평대-행원-민악, 갈색산림토는 흑악-노로-적악 일대에서 채집하였다. 식물의 경우 고산식물과 관목림을 제외하고 중간산일대부터 해안지내까지 자생하는 침엽수림, 활엽수림, 상록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정하였다. 산림청(2015)의 임상 및 수종분포 목록을 참고하여 침엽수림은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를, 활엽수림은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를 상록활엽수는 구실잣밤나무, 녹나무를 대표로 선정하였다. 바다의 색은 바다 밑 토양이나 암석에 의해 색이 크게 달라보이므로 패사에 의한 바다색과 현무암에 의한 바다색으로 크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하늘의 경우 색채조사가 시행되는 오전 11시~오후 3시 경의 제주 하늘의 색을 조사한다.

제주도 현대주거경관의 경우 일반적인 색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네 개의 방위별로 조사 구역을 임의 선정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역 중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에 한하여 동부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서부에서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남부에서는 서귀포시 법환동, 북부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림 10] 현대주거경관 색채조사 대상지 선정

방위 별 네 개 마을에서 관찰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가옥들을 약 30~40 채씩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건축물 각 면에 따른 구성요소의 색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 대로에 면한 하나의 면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맑은 날 오전 11시~오후 3시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육안측색 방법으로 색채를 측색하였으며, 측색도구로 **NCS INDEX ORIGINAL** 색 표본을 사용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직접측색, 대상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 간접측색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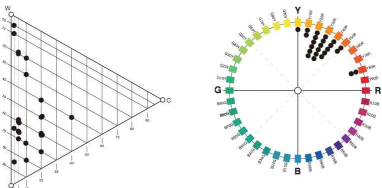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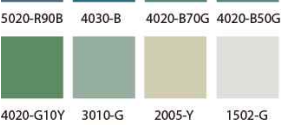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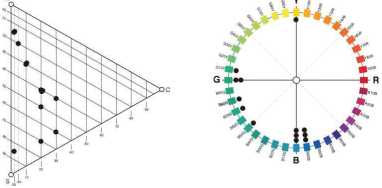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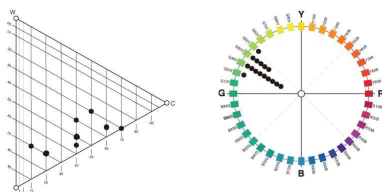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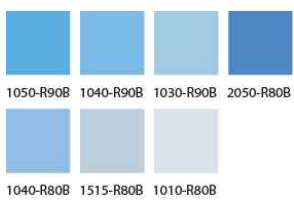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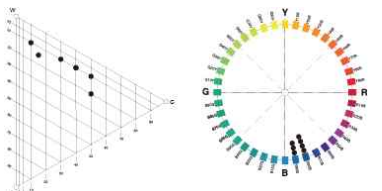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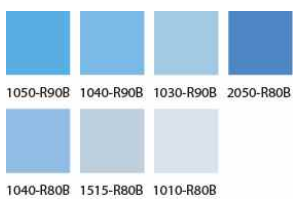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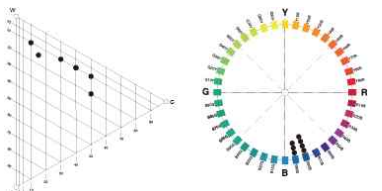
[그림 11] 직접측색과 간접측색의 방법 (좌, 우)

3. 제주도 지역색 색채정보 구축

가.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표 12>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구분	이미지	단색팔레트	NGS NOTATION
토양	 <p>(출처: 권진희, 1999)</p>	 <p>0502-Y30R 1002-Y40R 2005-Y30R 2005-Y40R 2010-Y40R 3010-Y40R 4020-Y20R 5020-Y20R 6005-Y10R 6005-Y20R 6005-Y40R 6502-Y 7005-Y10R 7005-Y30R 8502-Y30R 4040-Y30R 5020-Y20R 6020-Y20R 7020-Y30R 8010-Y20R 6020-Y50R 6020-Y50R 7005-Y80R 7010-Y80R</p>	 <p>▶색상범위 Y, YR 계열 ▶색조범위 S: 05~85 C: 02~40</p>
바다	패사에 의한 바다 	 <p>5020-R90B 4030-B 4020-B70G 4020-B50G 4020-G10Y 3010-G 2005-Y 1502-G</p>	 <p>▶색상범위 Y, RB, B, BG, G, GY 계열 ▶색조범위 S: 15~85 C: 05~30</p>
	현무암에 의한 바다 	 <p>3010-R90B 6030-R90B 7020-B 8505-B80G 1502-B</p>	

식물	침엽수림 	 <p>5040-G40Y 3050-G50Y 5040-G30Y 7020-G30Y 3560-G30Y 4040-G40Y 7020-G30Y 5040-G40Y 7020-G30Y 7020-G30Y 3560-G30Y 5040-G20Y 2070-G40Y 3560-G40Y 7010-G30Y 5540-G30Y</p>	 <p>▶색상범위 GY 계열 ▶색조범위 S: 30~70 C: 10~70</p>
	활엽수림 	 <p>1050-R90B 1040-R90B 1030-R90B 2050-R80B 1040-R80B 1515-R80B 1010-R80B</p>	 <p>▶색상범위 RB 계열 ▶색조범위 S: 10~20 C: 10~60</p>
하늘		 <p>1050-R90B 1040-R90B 1030-R90B 2050-R80B 1040-R80B 1515-R80B 1010-R80B</p>	 <p>▶색상범위 RB 계열 ▶색조범위 S: 10~20 C: 10~60</p>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토양의 색채가 나타난다. 토양의 색은 05~85, 02~40의 전명도, 중저채도 범위의 Y~Y80R에 분포한다. 패사의 고명도 부터 파식한 현무암의 저명도 까지 모래에 의해서 다양한 명도 범위가 보이며, 대부분의 모래, 흙, 송이가 저채도에 속하지만 중채도에 속하는 송이로 인해 중저채도의 채도범위가 보인다. 바다는 15~70의 전명도, 02~30의 저채도 범위의 R90B~B, 15~85의 전명도, 02~20의 저채도 범위의 B50G~G10Y에 분포한다. 모든 색상이 저채도에 속하며, 패사에 의한 바다는 고중명도에, 현무암에 의한 바다는 저

명도의 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명도의 색채를 볼 수 있다. 식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이 9월~10월로 한정되어 있어 늦여름의 색채현황만 조사하였지만, 박정은 (1999)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4계절 색채현황인 봄, 가을, 겨울의 색채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봄에는 05~30의 고명도, 20~70의 전체도의 G50Y~Y20R 범위에 분포한다. 여름에는 30~55의 고중명도, 40~70의 고중채도의 G20Y~G50Y 범위에 분포한다. 가을에는 50~60의 중명도, 30~60의 저채도 범위의 G20Y~G40Y, 30~70의 중명도, 20~60의 중저채도의 Y50R~Y90R에 분포한다. 겨울에는 40~80의 중저명도, 10~40의 중저채도의 Y50R~Y90R에 분포한다. 정리하면, G20Y~Y20R 색상범위는 05~60의 고중명도, 20~70의 전체도 범위의 색조 특징을, Y50R~Y90R 색상범위는 30~80의 중저명도, 10~60의 중저채도 범위의 색조특징을 가진다. 하늘은 R80B~R90B의 색상범위에 분포하며 10~20의 고명도, 10~50의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한다.

나. 인공경관요소 색채현황

(1) 현대주거경관요소

(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서는 총 42개 건축물의 구성요소별 색채현황을 조사하였다. 신양리의 조사 대상지를 [그림 12]와 같이 표시하였으며, 현황 사진은 [그림 13]과 같다. <표 13>과 같이 경관요소 별 색채현황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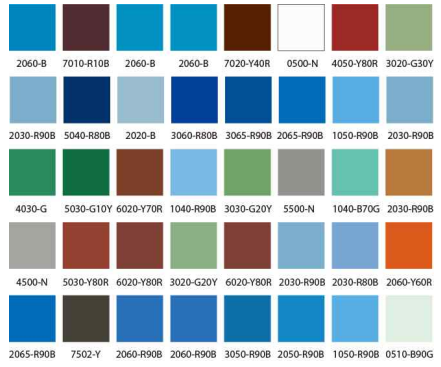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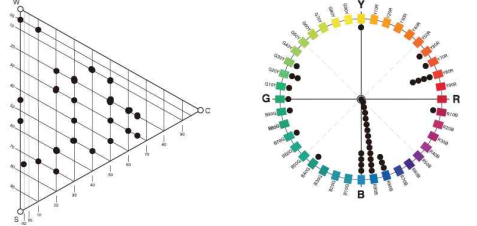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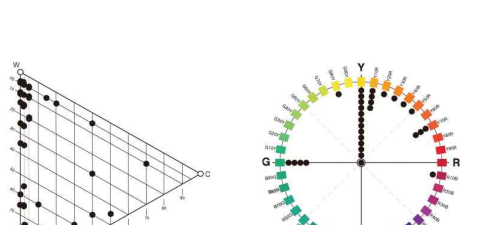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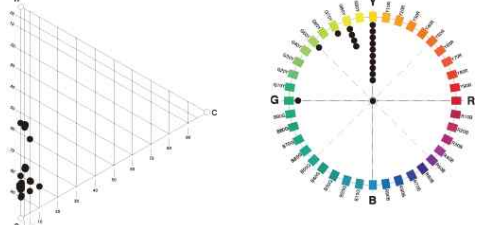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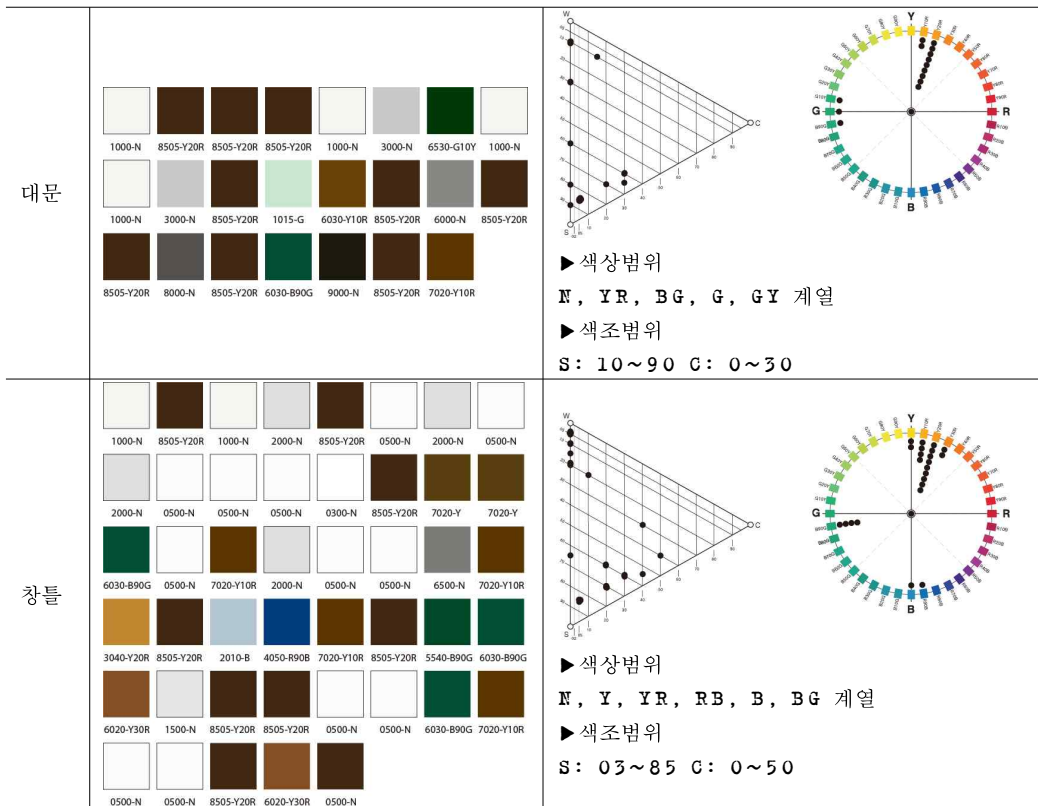
[그림 12]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key map



[그림 13]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현황사진

<표 13>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색채현황

구분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지붕	 <p>2060-B 7010-R10B 2060-B 2060-B 7020-Y40R 0500-N 4050-Y80R 3020-G30Y 2030-R90B 5040-R80B 2020-B 3060-R80B 3065-R90B 2065-R90B 1050-R90B 2030-R90B 4030-G 5030-G10Y 6020-Y70R 1040-R90B 3030-G20Y 5500-N 1040-B70G 2030-R90B 4500-N 5030-Y80R 6020-Y80R 3020-G20Y 6020-Y80R 2030-R90B 2030-R80B 2060-Y60R 2065-R90B 7502-Y 2060-R90B 2060-R90B 3050-R90B 2050-R90B 1050-R90B 0510-B90G</p>	 <p>▶색상범위 N, Y, YR, RB, B, BG, B, GY 계열 ▶색조범위 S: 05~75 C: 0~65</p>
외벽	 <p>0515-Y 0500-N 0502-Y50R 6000-N 6010-Y10R 3502-Y 6502-Y 2005-Y 0500-N 0505-Y 1500-N 1000-N 0505-Y10R 1000-N 1005-Y20R 1070-G80Y 2500-N 0505-Y30R 1000-N 0520-R10B 3040-Y40R 1005-N 1002-G 3500-N 4550-Y70R 2502-Y 7502-Y 2502-G 7502-G 1505-Y 1002-G 5502-Y 7502-Y 5040-Y70R 0540-B 0505-Y 6030-Y70R 1502-Y 7502-Y 1505-Y 2005-Y10R 0505-Y 1000-N 1000-N 2005-Y10R 1000-N 6502-Y 7502-Y 6502-Y 7502-Y 0505-Y 0505-Y</p>	 <p>▶색상범위 N, Y, YR, RB, B, G, GY 계열 ▶색조범위 S: 05~75 C: 0~70</p>
돌담	 <p>8505-G80Y 8005-G80Y 8500-N 9000-N 8000-N 5500-N 7502-G 8500-N 9000-N 6005-G50Y 8500-N 8500-N 8010-G70Y 5502-Y 8500-N 8005-G80Y 8005-G80Y 8500-N 5502-Y 8500-N 7502-Y 8500-N 7502-Y 7502-Y 7502-Y 8500-N 5502-Y 7502-Y 8500-N 8500-N 8500-N 8500-N 8500-N 5502-Y 8500-N 8500-N 8500-N</p>	 <p>▶색상범위 N, Y, G, GY 계열 ▶색조범위 S: 55~90 C: 0~10</p>



지붕은 05~75의 전 명도, 0~65의 중저채도 범위의 N, Y, YR, RB, B, BG계열의 색상 범위에 분포하며 특히 YR, RB, B, GY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외벽은 05~75의 전 명도, 0~70의 전 채도 범위에 분포하며 색상은 주로 N, Y, YR계열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돌담은 55~90의 중저명도, 0~10의 저채도 범위의 N, Y, G, GY계열에 분포한다. 대문은 10~90의 전 명도, 0~30의 저채도 범위의 N, YR, G계열에 주로 분포한다. 창틀은 03~85의 전명도, 0~50의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며 N, Y, YR, RB, B, BG 계열에 분포한다.

(나)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서는 총 43개 건축물의 구성요소별 색채현황을 조사하였다. 신창리의 조사 대상지는 [그림 14]와 같으며, 현황사진은 [그림 15]와 같다. 색채현황은 <표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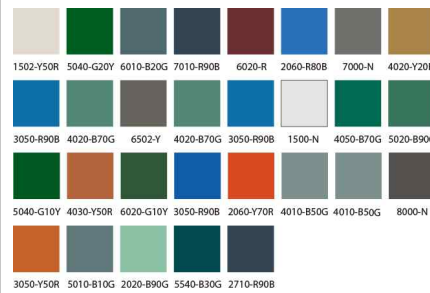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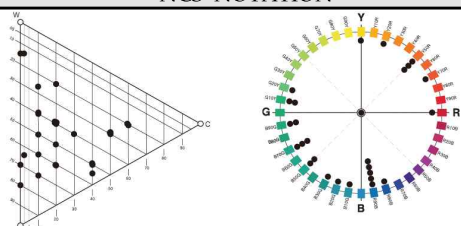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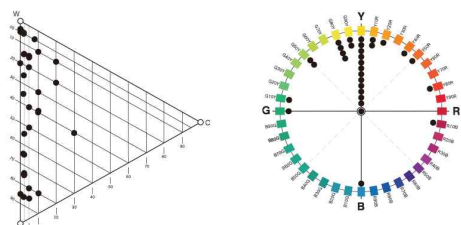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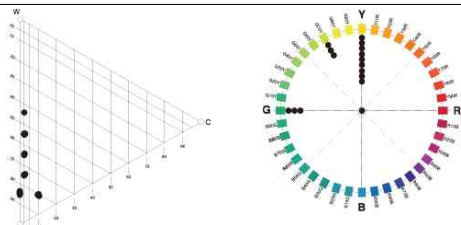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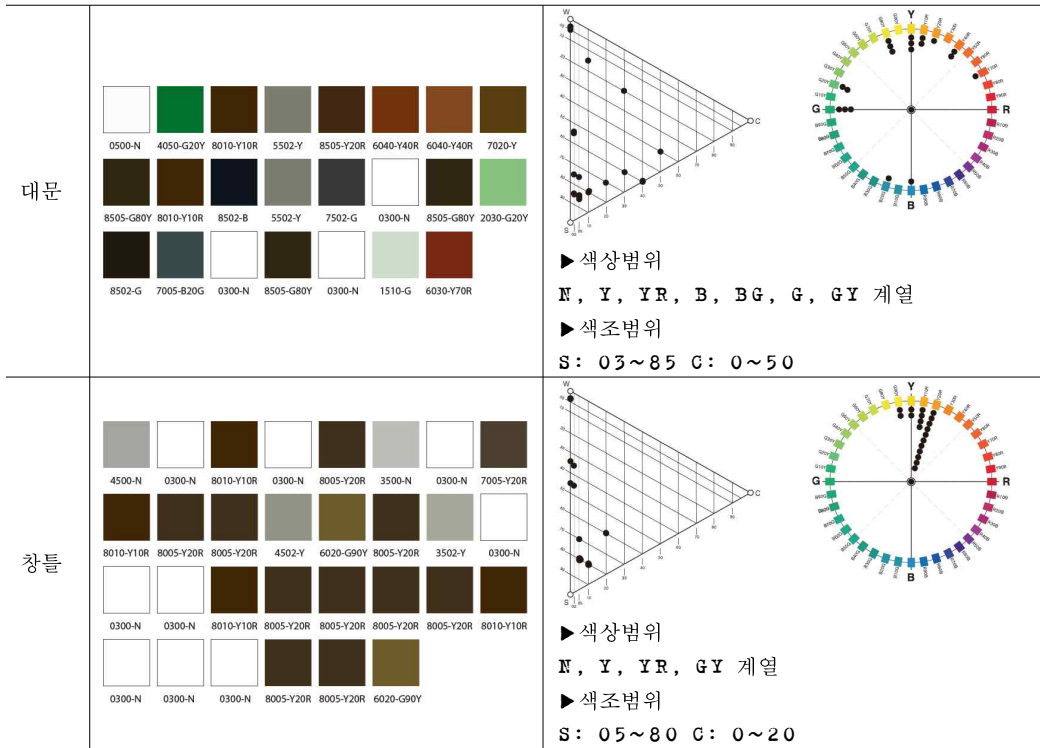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key map



[그림 15]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현황사진

<표 14>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색채현황

구분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지붕	 <p>1502-Y50R 5040-G20Y 6010-B20G 7010-R90B 6020-R 2060-R80B 7000-N 4020-Y20R 3050-R90B 4020-B70G 6502-Y 4020-B70G 3050-R90B 1500-N 4050-B70G 5020-B90G 5040-G10Y 4030-Y50R 6020-G10Y 3050-R90B 2060-Y70R 4010-B50G 4010-B50G 8000-N 3050-Y50R 5010-B10G 2020-B90G 5540-B30G 2710-R90B</p>	 <p>▶색상범위 N, Y, YR, R, RB, BG, GY 계열 ▶색조범위 S: 15~80 C: 0~60</p>
외벽	 <p>1502-G50Y 3502-Y 1502-Y 2020-G80Y 0500-N 5005-G80Y 0603-Y80R 2502-B 6502-Y 2000-N 7502-Y 8502-G 5005-G80Y 8505-G80Y 8502-Y 0505-Y 0507-Y 1505-Y10R 8010-Y50R 0500-N 1010-R10B 3010-Y20R 4010-G90Y 1505-Y 4005-G50Y 7502-Y 8005-N 0507-Y 4010-G90Y 8005-N 2005-G10Y 6502-Y 8500-N 5502-Y 7502-Y 0500-N 1020-Y 0502-Y 4030-Y40R 1510-Y10R 7502-Y 0300-N</p>	 <p>▶색상범위 N, Y, YR, RB, B, G, GY 계열 ▶색조범위 S: 03~85 C: 0~30</p>
돌담	 <p>8500-N 4502-Y 7502-G 6502-G 5502-Y 8500-N 7502-Y 8500-N 5502-Y 5502-Y 7502-Y 8010-G70Y 8010-G70Y 5502-Y 8010-G70Y 6502-Y 6502-G 8500-N 8500-N</p>	 <p>▶색상범위 N, Y, G, GY 계열 ▶색조범위 S: 45~85 C: 0~10</p>



지붕은 15~80의 전 명도, 0~60의 중저채도 범위의 N, Y, YR, R, RB, BG, GY 계열에 분포한다. 외벽은 03~85의 전 명도, 0~30의 저채도 범위의 N, Y, YR, RB, B, G, GY계열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담은 45~85의 중저명도, 0~10의 저채도 범위의 N, Y, G, GY계열에 분포한다. 대문의 경우 03~85의 전 명도, 0~50의 중저채도 범위의 N, Y, YR, B, BG, G, GY계열에 분포한다. 창틀은 05~80의 전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의 N, Y, YR, GY계열에 분포하고 있다.

(다) 서귀포시 범환동

서귀포시 범환동에서는 총 39개 건축물의 구성요소별 색채현황을 조사하였

다. 범환동의 조사 대상지는 [그림 16]과 같으며, 현황사진은 [그림 17]과 같다. 색채현황은 <표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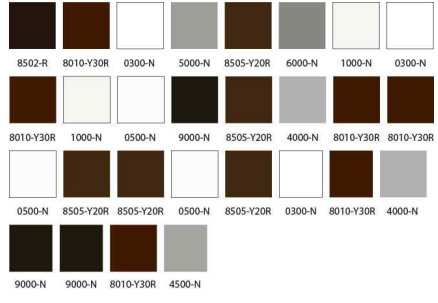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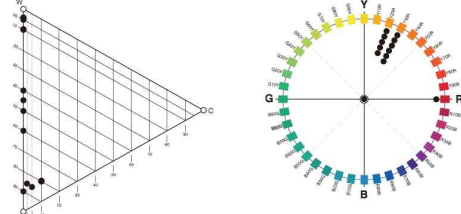
[그림 16] 서귀포시 범환동 key map



[그림 17] 서귀포시 범환동 현황사진

<표 15> 서귀포시 범환동 색채현황

구분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지붕	<p>2050-R80B 1050-R90B 1040-B 1060-B 2065-B 5020-G 5030-G10Y 4040-Y90R 1560-R90B 4550-Y70R 3560-R80B 2060-R80B 1050-R90B 1050-R90B 1040-R90B 3050-R 3040-R90B 4010-G10Y 1050-R90B 3030-G 2060-Y80R 3050-Y40R 0540-R90B 1050-R90B 2060-Y60R 4050-Y70R 2070-Y70R 5040-R80B 2070-Y70R 5020-G10Y 1510-G40Y 1070-Y70R</p>	<p>▶색상범위 YR, R, RB, B, G, GY 계열 ▶색조범위 S: 05~50 C: 10~70</p>
외벽	<p>1010-Y10R 1515-G20Y 1000-N 1515-Y 1505-Y 2010-G10Y 8000-N 1000-N 1502-G 1500-N 2500-N 1505-Y 1515-Y 2500-N 1500-N 6500-N 1510-Y 1505-Y 1515-Y 1505-Y 1500-N 1502-G 6500-N 2000-N 5020-Y50R 1500-N 4500-N 0502-Y 1000-N 1000-N</p>	<p>▶색상범위 N, Y, YR, G, GY 계열 ▶색조범위 S: 05~80 C: 0~20</p>
돌담	<p>5502-Y 7502-G 8500-N 8500-N 8010-G70Y 8500-N 8500-N 7502-Y 8500-N 5500-N 8500-N 8500-N 8500-N 8500-N 5502-Y 7502-Y 7502-Y 8500-N 5502-Y 8010-G70Y 7502-Y 8500-N 5502-Y 7502-Y 8500-N 8500-N</p>	<p>▶색상범위 N, Y, G, GY 계열 ▶색조범위 S: 55~85 C: 0~10</p>
대문	<p>8502-R 6500-N 9000-N 5040-Y90R 9000-N 4000-N 3560-G30Y 5000-N 3000-N 3555-B60G 9000-N 8505-Y20R 8010-Y30R 6500-N 3055-B50G 1500-N 6000-N 0300-N</p>	

		▶색상범위 N, YR, R, BG, GY 계열 ▶색조범위 S: 03~90 C: 0~55
창틀		 ▶색상범위 N, YR, R 계열 ▶색조범위 S: 03~90 C: 0~10

지붕은 05~50의 고중명도, 10~70의 전 채도 범위의 YR, R, RB, B, G, GY계열에 분포한다. 외벽의 경우 05~80의 전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의 N, Y, YR, G, GY계열 색상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돌담은 55~85의 중저명도, 0~10의 저채도 범위의 N, Y, G, GY계열에 분포한다. 대문은 03~90의 전 명도, 0~55의 중저채도 범위의 N, YR, R, BG, GY계열에 분포한다. 창틀은 03~90의 전 명도, 0~10의 저채도 범위의 주로 N, YR, R 계열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는 총 39개 건축물의 구성요소별 색채현황을 조사하였다. 신촌리의 조사 대상지를 [그림 18]과 같이 표시하였으며, 현황사진은 [그림 19]와 같다. 색채현황은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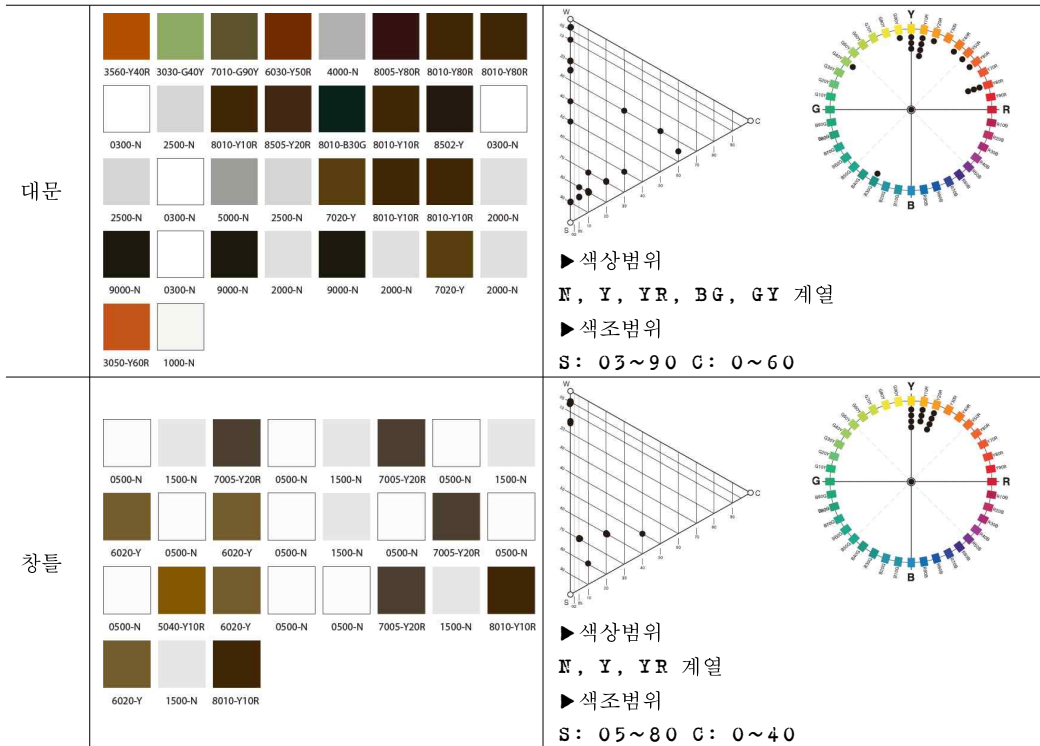
[그림 18]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key map



[그림 19]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현황사진

<표 16> 제주도 조천읍 신촌리 색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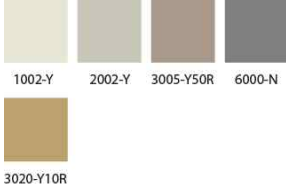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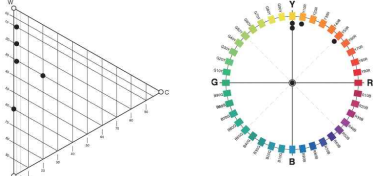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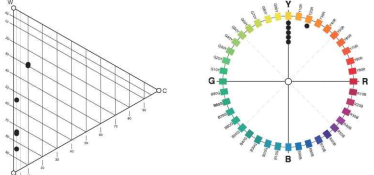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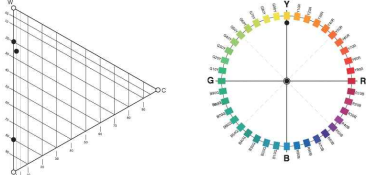
구분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지붕	<p>0540-R90B 1060-B 1060-B 0585-Y50R 4040-R 1060-B 2060-B 2065-R90B 6030-Y70R 5030-B90G 5040-Y70R 3050-Y50R 6030-Y80R 1060-B 1030-B 7005-R80B 1020-R90B 8010-Y90R 6502-G 5030-Y90R 4030-G10Y 7010-R90B 2030-B10G 1030-B 7502-B 7020-B 2050-R90B 4550-Y70R 3040-R90B</p>	<p>▶색상범위 YR, R, RB, B, BG, G, GY 계열 ▶색조범위 S: 05~80 C: 02~85</p>
외벽	<p>0505-Y10R 6502-Y 0502-Y 5040-Y70R 7020-Y70R 0500-N 0502-Y 1500-N 3030-Y40R 3050-Y80R 1502-Y 5502-Y 0500-N 1502-Y 0502-Y 1500-N 7020-Y80R 0502-Y 0507-Y20R 1502-R 4550-Y50R 0502-Y 5502-Y 7502-Y 1515-G20Y 0300-N 8010-R10B 0502-Y50R 3560-Y60R 1000-N 4050-Y70R 0510-Y10R 2002-Y 3560-Y60R 1500-N 5502-Y 1505-Y10R 1002-G 7502-Y 0500-N 2002-Y 0502-Y50R 7020-Y70R</p>	<p>▶색상범위 N, Y, YR, R, RB, G, GY 계열 ▶색조범위 S: 03~80 C: 0~60</p>
돌담	<p>5502-Y 8500-N 5502-Y 8000-N 8500-N 8500-N 6005-G50Y 7502-Y 8500-N 7502-Y 8500-N 7502-Y 8500-N 5502-Y 8005-G80Y 8500-N 7502-Y 8500-N 7502-Y 7502-Y 7005-G80Y 8500-N 8500-N 7500-N 8010-Y30R 8010-Y30R 7020-Y30R 7020-Y30R</p>	<p>▶색상범위 N, Y, YR, GY 계열 ▶색조범위 S: 55~85 C: 0~20</p>



지붕은 05~80의 전 명도, 02~85의 전 채도 범위의 YR, R, RB, B, BG, G, GY 계열에 분포하고 있다. 외벽은 03~80의 전 명도, 0~60의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며 주로 N, Y, YR 계열의 색상범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돌담은 55~85의 중저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의 N, Y, YR, GY 계열에 분포한다. 대문은 03~90의 전 명도, 0~60의 중저채도 범위의 N, Y, YR, BG, GY 계열에 분포하고 있다. 창틀은 05~15, 50~80의 고저명도, 0~40의 저채도 범위의 N, Y, YR 계열에 분포하고 있다.

(2) 전통주거경관요소

<표 17> 전통주거경관요소 색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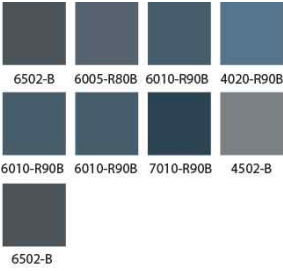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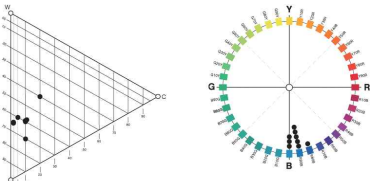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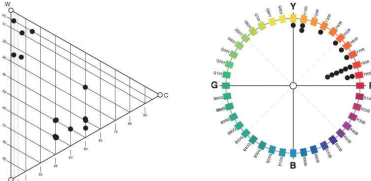
구분	이미지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초가지붕		 <p>1002-Y 2002-Y 3005-Y50R 6000-N</p> <p>3020-Y10R</p>	 <p>▶색상범위 N, Y, YR 계열 ▶색조범위 S: 10~60 C: 0~20</p>
돌벽		 <p>3010-Y 5502-Y 7502-Y 8502-Y</p> <p>3010-Y20R 7502-Y</p>	 <p>▶색상범위 Y, YR 계열 ▶색조범위 S: 30~85 C: 0~10</p>
정낭		 <p>2000-N 2502-Y 8000-N</p>	 <p>▶색상범위 N, Y 계열 ▶색조범위 S: 20~80 C: 0~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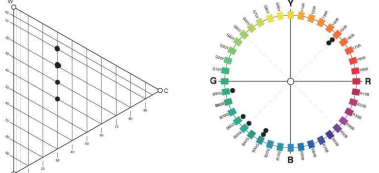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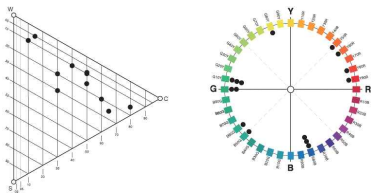
전통주거경관요소는 초가지붕, 돌벽, 정낭 3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초가지붕은 60의 중명도 범위의 N계열, 10~30의高明도, 02~20의 저채도 범위의 Y~Y10R, 30의高明도, 05의 저채도 범위의 Y50R에 분포한다. 돌벽은 30~85의 전명도, 02~10의 저채도 범위의 Y~Y20R에 분포한다.

정량은 20~80의 전명도 범위의 R계열과 25의 고명도, 02의 저채도 범위의 Y계열에 분포한다.

(3) 역사문화경관요소

<표 18> 역사문화경관요소 색채현황

구분	이미지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기 와 지붕		 <p>6502-B 6005-R80B 6010-R90B 4020-R90B 6010-R90B 6010-R90B 7010-R90B 4502-B 6502-B</p>	 <p>▶색상범위 RB, B 계열 ▶색조범위 S: 40~70 C: 02~20</p>
외 벽, 기 둥, 보		 <p>030-Y10R 0502-Y50R 0570-Y 0515-Y30R 6030-Y80R 6030-Y80R 4550-Y70R 2502-Y 5030-Y80R 6030-Y80R 5040-Y80R 2050-Y90R 4050-Y60R 6030-Y80R 4050-Y90R</p>	 <p>▶색상범위 Y, YR 계열 ▶색조범위 S: 02~60 C: 02~50</p>

<p>문 , 창틀</p>			 <p>▶색상범위 YR, BG 계열 ▶색조범위 S: 20~40 G: 30</p>
<p>단청</p>			 <p>▶색상범위 YR, RB, BG, G, GY 계열 ▶색조범위 S: 05~30 G: 10~80</p>

역사 문화재의 건축물 구성요소인 기와지붕, 외벽 및 기둥, 문 및 창틀, 단청으로 역사문화경관요소를 구성하였다. 기와지붕은 R80B~B의 색상범위에 분포하며 40~70의 중저명도, 02~20의 저채도 범위에 분포한다. 외벽과 기둥은 Y~Y90R에 주로 분포하며, 05~60의 고중명도, 02~50의 고중채도에 분포한다. 문 및 창틀은 40~50의 중명도, 30의 저채도 범위의 Y50R에 분포하며, 10~20의 고명도, 30의 저채도 범위의 B30G~B90G에 분포한다. 단청은 Y50R~Y90R, R80B, B50G~B60G, G~G10Y, G80Y에 분포하여 요소 중 가장 많은 색상범위의 사용을 보인다. Y50R~Y90R 범위는 05~15의 고명도, 10~80의 전체도의 색조특징을 가지며, R80B는 15~25의 고명도, 50~65의 중채도의 색조특징을, B50G~B60G 범위는 10~30의 고명도, 30의 저채도의 색조특징을, G~G10Y 범위는 10~40의 고중명도, 10~50의 중저채도의 색조특징을

가진다.

다. 색채현황 종합

다음 <표 19>와 같이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색채현황을 종합하였다. 현대주거경관의 경우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위 별 4개 주거지역에서 약 40개 가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이는 일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를 다시 건축물 요소 별로 통합하였다.

<표 19> 지역색 색채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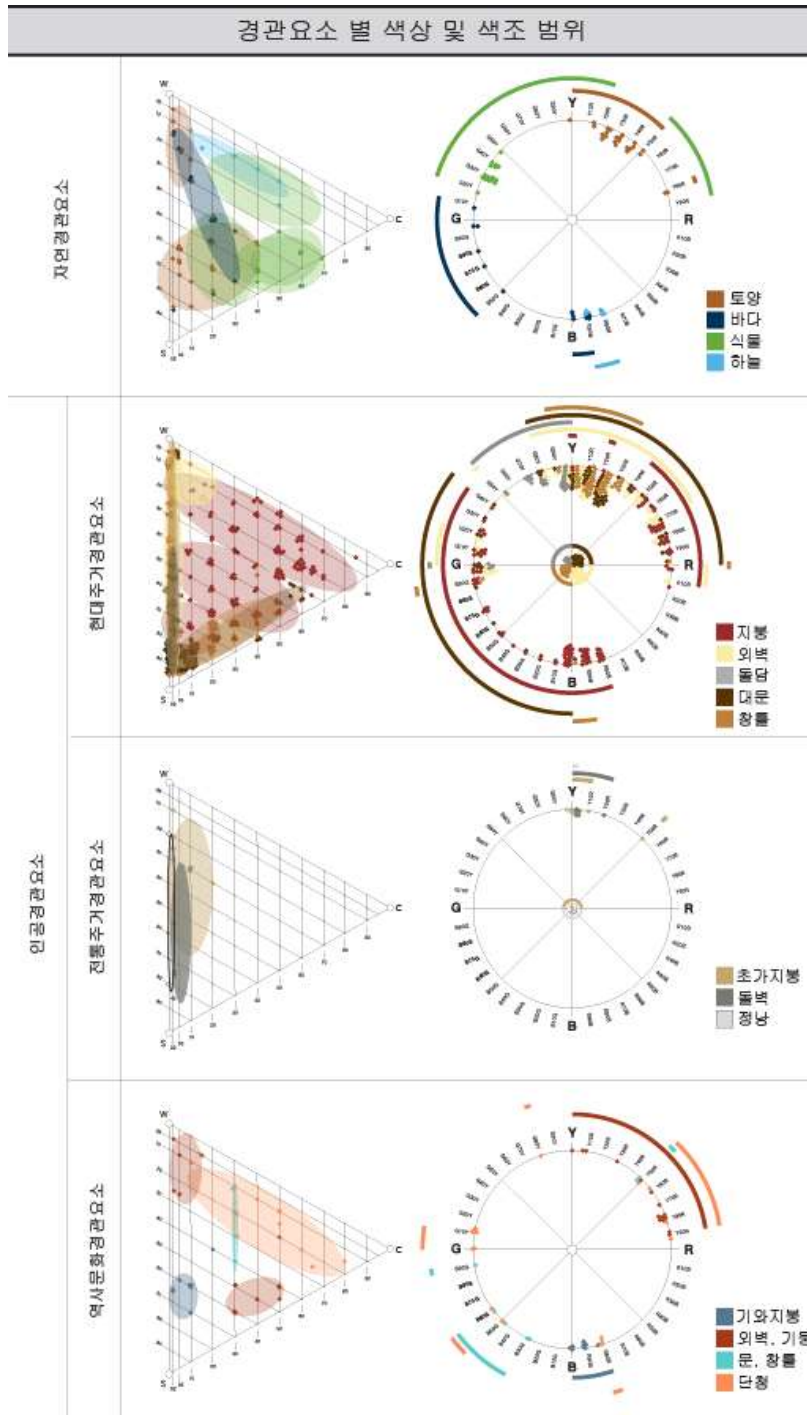
자연경관요소	
토양	<p>▶ 색채특징 중명도 저채도의 Y계열 전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p>
바다	<p>▶ 색채특징 고명도 저채도의 RB계열 전명도 저채도의 B계열 중저명도 저채도의 BG계열 저명도 저채도의 G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GY계열</p>
식물	<p>▶ 색채특징 고명도 고중채도의 GY계열</p>
하늘	<p>▶ 색채특징 고명도 중저채도의 RB계열</p>

인공경관요소					
현대주거경관요소		전통주거경관요소		역사문화경관요소	
지붕	<p>▶ 주로 분포하는 색채특징 (10%이하 제외) 전명도의 N계열 전명도 전채도의 YR계열 전명도 중저채도의 RB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B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BG계열</p>	초가 지붕	<p>▶ 색채특징 중명도의 N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R계열</p>	기와 지붕	<p>▶ 색채특징 중명도 저채도의 RB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B계열</p>
외벽	<p>▶ 주로 분포하는 색채특징 (10%이하 제외) 전명도의 N계열 전명도 저채도의 Y계열 전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p>	돌벽	<p>▶ 색채특징 전명도 저채도의 Y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R계열</p>	외벽, 기둥	<p>▶ 색채특징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p>
문, 담	<p>▶ 색채특징 중저명도 N계열 중저명도 저채도의 Y계열 저명도 저채도의 G계열 중저명도 저채도의 GY계열</p>	정자	<p>▶ 색채특징 고저명도 N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p>	문, 창틀	<p>▶ 색채특징 중명도 저채도의 YR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BG계열</p>
대문	<p>▶ 주로 분포하는 색채특징 (10%이하 제외) 전명도 저채도의 N계열 중저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p>			단청	<p>▶ 색채특징 고명도 전채도의 YR계열 고명도 중채도의 B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BG계열 고명도 중채도의 G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GY계열</p>
창틀	<p>▶ 주로 분포하는 색채특성 (10%이하 제외) 전명도 저채도의 N계열 중저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p>				

4. 지역색 요소 간 관계 분석

현재 개선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 반영이 가능한 현대주거경관을 중심으로 이의 경관요소들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대주거경관 범위 내 요소 간, 현대주거경관요소와 자연경관요소 간, 현대주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요소 간, 현대주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요소 간, 총 4개 관계의 분석을 위해 다음 <표 20>과 같이 색상 및 색조범위를 표시하였다.

<표 20> 지역색 요소 색상 및 색조범위



범주화한 각 색상 및 색조 범위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관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색상과 색조 범위에서 요소 간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한다.

2. 색상과 색조범위가 요소 별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혹은 제한되어 있는지 비교한다.

가. 현대주거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현대주거경관요소의 색상 범위를 비교해 보면, 대문, 지붕, 창틀, 외벽, 돌담 순으로 점점 색상의 분포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N, G, G50Y~Y 범위에 분포하는 돌담, N, Y~R, G~Y색상범위에 분포하는 외벽, N, Y~Y30R 범위 위주에 분포하는 창틀에 비하면 나머지 두 요소인 지붕은 N, Y, Y~R, R80B~B, B~G, G~G40Y, 대문은 N, Y~R, B~G, G~Y 범위에 분포하여 색상 사용의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색조 범위에서 다섯 가지 요소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외벽, 대문, 창틀, 돌담이 45~90의 중저명도, 0~05의 저채도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문과 창틀이 40~90의 중저명도, 0~60의 중저채도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지붕은 모든 요소와 공통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05~80, 02~85의 전명도 전채도 범위에 분포하여 색조범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요소는 명도 사용에서 제한이 없다. 가장 제한적인 채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요소는 돌담이며 외벽, 창틀, 대문, 지붕 순으로 사용한 채도 범위가 자유롭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조색에 해당하는 돌담은 **N**, **GY**계열, 외벽은 **N**, **YR**, **GY** 계열, 강조색에 해당하는 창틀은 **N**, **YR**계열에 속하며 이에 비해 보조색인 지붕, 강조색인 대문은 색상 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 외벽, 대문, 창틀, 돌담은 전명도, 0~05의 극도로 한정된 채도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색상기미가 거의 없는 색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조색인 외벽은 전명도 전체도 범위에 분포하지만 대체로 고명도 저채도, 전명도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율이 크며, 주조색에 해당하는 돌담은 중저명도 저채도에 분포한다. 보조색인 지붕은 전명도 전체도 범위에 분포하며 색조사용에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조색인 대문과 창틀은 전명도 저채도, 중명도 중채도, 저명도 저채도 범위에 분포한다.

- 돌담을 제외한 모든 요소는 명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

- 주조색에서 강조색, 보조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채도 사용이 자유롭다.

나. 현대주거경관요소와 자연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자연경관과 현대경관의 요소들의 색상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인공경관요소에서만 **N**계열이 나타나는 점이다. 외벽은 **N**계열을 제외하고는 토양과 식물의 색범위에 분포하며 식물의 색인 **G30Y~G70Y**의 범위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돌담은 **N**계열을 제외하고는 식물의 **G50Y~Y**의 색상범위에 분포한다. 색상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편인 지붕은 하늘의 **R80B~R90B**, 바다의 **B50G~G10Y**, 식물의 일부 범위인 **G20Y~G40Y**, **Y50R~Y90R** 범위에 분포하며 **G50Y~Y30R**에 해당하는 식물 및 **Y~Y40R**의 토양의 색에는 분포하는 비중이 적거나 없다. 대문 또한 다양한 색상계열을 사용하는 현황이어서 **R80B~R90B**, **G50Y~G70Y**

에 해당하는 하늘, 식물의 색상 범위를 제외한 토양, 식물, 바다의 색상범위를 아우른다. 창틀은 G90Y~Y30R에 분포하여 식물과 토양의 일부 색상범위를 포함한다.

모든 인공경관요소의 색채가 명도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요소와의 명도범위비교는 하지 않는다. 인공경관요소 중 지붕은 전명도 전체 범위에 분포하며 일관적 경향이 보이지 않지만, 자연경관의 모든 요소보다 높은 채도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인공경관요소 중 돌담, 외벽, 대문, 창틀은 0~0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지만 돌담을 제외한 세 요소들은 중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또 다른 군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외벽의 경우 05~30의 고명도, 02~1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토양, 바다의 일부와 공통된 색조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고명도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하늘의 색조범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증명도 중채도, 저명도 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대문과 창틀의 경우 식물, 토양, 바다와 일부 공통된 색조 범위를 가지나, 중저명도 중저채도에 속하는 식물, 토양과 증명도 저채도에 속하는 바다의 색조 범위가 더 유연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공경관요소에서만 \aleph 계열의 색사용이 나타난다.
- 주조색인 외벽은 식물의 일부 색상범위인 G30Y~G70Y를 제외하고는 토양, 식물의 색범위에 분포하며, 돌담은 식물의 일부 색상범위인 G50Y~Y에 분포한다.
- 보조색인 지붕은 G50Y~Y30R에 해당하는 식물 및 Y~Y40R의 토양의 색 외에 하늘, 바다, 식물의 일부 색상범위에 분포한다.
- 강조색인 대문은 R80B~R90B, G50Y~G70Y에 해당하는 하늘, 식물의 색상 범위를 제외한 토양, 식물, 바다의 색상범위에 분포하며, 창틀은

G90Y~Y30R에 분포하여 식물과 토양의 일부 색상범위를 포함한다.

- 주조색 중 하나인 돌담은 다른 모든 요소에 비해 극도로 제한된 0~05의 채도범위를 가지고 있다.

- 주조색 중 하나인 외벽, 강조색인 대문과 창틀은 저명도, 0~0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아 자연경관의 모든 요소보다 낮은 채도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또 다른 군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 주조색인 외벽은 고명도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아 토양, 바다, 하늘의 일부와 공통된 색조범위를 포함한다.

- 보조색인 지붕은 일정한 색조범위의 경향이 없으며, 자연경관의 모든 요소보다 높은 채도 범위에도 분포한다.

- 강조색인 대문과 창틀은 중명도 중채도, 저명도 저채도군에 속하여 중저명도 중저채도에 속하는 식물, 토양과 중명도 저채도에 속하는 바다의 일부 색조범위와 공통 범위를 가진다.

다. 현대주거경관요소와 전통주거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현대주거경관에 비하여 전통주거경관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색상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현대주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의 주조색은 모두 Y~Y20R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현대주거의 주조색은 YR계열이외에 N, GY계열에도 분포하고 있다.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인 지붕은 일관된 경향 없이 다양한 색상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전통주거경관의 지붕은 N, Y~Y10R, Y50R의 한정된 색상계열에 분포한다. 현대주거경관의 강조색 요소 중 대문은 다양한 색상범위에 속하지만 창틀은 N, G90Y~Y30R에 속하여 N, Y계열에 속하는 전통주거경관의 강조색 요소와 색상범위가 유사한 편이다.

색조범위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전통주거경관의 한정된 색조범위에 비하여 현대주거경관의 요소들은 색조범위가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다. 전통주거경관의 주조색은 30~85의 중저명도, 0~10의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은 02~90의 전명도 0~05의 저채도, 05~40의 고명도 0~40의 저채도군에 속한다. 보조색의 경우 전통주거의 지붕은 10~60의 고중명도 0~20의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의 지붕은 05~90의 전명도 02~85의 전체도에 속한다. 강조색 요소에 해당하는 정낭은 20~80의 중명도 중심의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의 강조색인 대문과 창틀은 02~90의 전명도 0~02의 저채도, 30~60의 중명도 30~60의 중채도, 60~90의 저명도 10~30의 저채도 군에 속한다.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통주거경관요소에 비하면 현대주거경관요소들은 색상 및 색조범위는 매우 자유롭다,
- 주조색에 해당하는 돌벽과 외벽 모두 Y~Y20R 범위를 포함하지만 현대주거의 주조색은 이외에도 N, GY계열을 포함한다.
- 보조색에 해당하는 초가지붕은 N, YR계열에만 분포하는 한편 현대주거의 지붕은 YR, RB, BG, GY계열에 모두 분포한다.
- 강조색에 해당하는 정낭은 N, Y계열에 속하여 N, G90Y~Y30R에 분포하는 현대주거의 강조색 요소인 창틀과 유사한 범위를 가지지만, 또 다른 강조색인 대문은 N, YR, BG, GY에 속하여 색상범위가 자유로운 편이다.
- 주조색 요소인 전통주거의 돌벽은 중저명도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의 외벽은 전명도 저채도, 고명도 저채도군에 속한다.
- 보조색의 경우 전통주거의 지붕은 고중명도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의 지붕은 전명도 전체도에 속한다.

- 강조색 요소에 해당하는 정낭은 증명도 중심의 전명도, 저채도에 속하지만 현대주거의 강조색인 대문과 창틀은 전명도 저채도, 증명도 중채도, 저명도 저채도 군에 속한다.

라. 현대주거경관요소와 역사문화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 요소인 외벽과 돌담 중 외벽은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인 외벽, 기둥과 Y~Y90R의 공통된 색상범위를 가지며, N, G, GY계열에도 속하는 현대주거경관에 비해 YR계열에만 존재하여 한정적인 색상 사용을 하고 있다. 보조색 요소인 현대주거경관의 지붕은 R20B~R70B, G50Y~G90Y의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색상계열에 분포하는 데 비해, 역사문화경관의 기와지붕은 R80B~B, 문 및 창틀은 주로 B30G~B60G로 매우 한정적인 색상범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강조색 요소인 대문과 창틀 중 대문은 N, YR, RB, GY계열에 속하며 역사문화경관의 강조색 요소인 단청은 YR, RB, BG, GY계열에 속하여 주조, 보조색에 비해 다양한 색상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현대주거경관의 주조, 강조색 요소들은 모두 N계열을 사용하는 반면, 역사문화경관의 요소들은 N계열의 사용이 전무한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색조사용을 비교해보면,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인 돌담과 외벽이 전명도, 0~0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아 05~25의 고명도, 02~15의 저채도와 40~60의 증명도, 30~50의 중채도에 분포하는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에 비해 색상기미가 없는 색을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주거경관의 외벽은 특히 02~25의 고명도, 0~1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율도 높아 역사문화경관 주조색의 고명도 저채도군과 공통된 범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일관된 경향이 없는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에 비해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는 60~70의 저명도 0~10의 저채도 범위와 10~40의 고중명도, 30의 저채도 범위에 분포하여 일정한 색조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두 경관의 강조색 요소의 색조범위 사용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문화경관의 강조색 요소는 고명도 전체도에 분포하며 현대주거경관의 강조색 요소는 전명도 저채도, 중명도 중채도, 저명도 저채도에 분포하여 두 구역 간 명도대비나 채도대비가 있는 색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YR계열에만 분포하여 N, YR, GY 계열에 분포하는 현대주거경관요소에 비해 한정적인 색상 범위를 가지며, Y~Y90R의 공통범위를 가진다.
-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인 지붕은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인 지붕에 비해 색상 사용이 매우 자유롭다. R20B~R70B, G50Y~G90Y의 범위를 제외한 모든 색상계열에 분포하여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인 기와 지붕과 문 및 창틀의 R80B~B, B30G~B60G 범위를 포함한다.
- 강조색 요소들은 주조, 보조색에 비해 YR, RB, GY의 다양한 색상계열에 분포하는 것이 공통점이며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BG계열에도 분포한다.
- 현대주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고명도 저채도의 공통범위를 가진다. 또한 중명도 중채도 범위에도 분포하는 역사문화경관에 비하여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은 전명도, 0~05의 저채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아 어둡거나 색상기미가 없는 색들도 분포함을 알 수 있다.
-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에 비하여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는 전명도, 전체도 범위에 분포하여 색조사용의 일관성이 없다.
- 강조색 요소는 색조 사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며,

역사문화경관의 명도, 채도가 높은 편이어서 두 구역 간 명도대비나 채도대비가 있는 색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대상지인 제주도의 지역색 구성요소와 상응하는 경관요소를 보유한 지역인 미국 캔트랜즈와 일본 가나자와시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캔트랜즈의 색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연경관요소와 조화하는 인공경관의 색채계획 원리를 도출하려고 하며, 가나자와시의 색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역사문화경관을 둘러싼 인공경관의 색채계획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캔트랜즈

캔트랜즈(Kentlands)는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37km 떨어진 게티스버그(Gaithersburg)에 위치하며, 미국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 수법인 전통적 근린주구개발(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원칙을 처음으로 실현한 곳이다. 캔트랜즈의 6개 근린주구는 10분 이내 거리의 도보로 연결시키고 있다. 호수와 습지 보호구역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중심부 주위로 집합주거가 밀도 높게 형성되고, 주변에는 낮은 밀도의 단독주거가 입지한다.

문선욱(2008)의 조사에 따르면, 캔트랜즈의 디자인 법률코드는 미국 북동부의 정착기 건축유형인 빅토리아 및 조지안 시대풍의 전통양식을 코드화한 "The Kentlands Code"를 따르고 있다. 건축자재, 구조, 건축기법에 관한 지침을 외벽, 지붕, 창문, 정원 등 각 요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어,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통일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디테일의 다양성을 허가하고 있다.

환경색채디자인 또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북동부 농장의 자연경관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역 풍토색을 기조로 자연의 풍부함을 나타내며, 인공적으로 도색하기보다는 벽돌과 같은 재료에 의한 색채표현으로 정체성이 뚜렷한 이미지로 완성된다.

가. 캔트랜즈 지역색 색채정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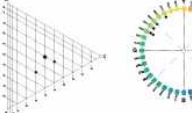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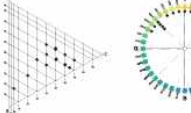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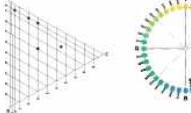
캔트랜즈의 자연경관은 풍부한 식생과 개별 정원의 식재, 하늘을 중심으로, 인공경관은 지붕, 외벽, 대문, 창틀로 요소를 구분하여 현황 색채를 파악한다.



[그림 20] 캔트랜즈 경관현황사진

(출처: 캔트랜즈 공식 홈페이지 www.kentlandsusa.com/)

<표 21> 캔트랜즈 자연경관요소 색채현황

구분	잔디	수목	하늘
단색팔레트			
NCS NO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GY 계열 ▶색조범위 S: 30~50 C: 30~50 ▶색채특징 -고명도 중저채도의 GY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Y, YR, GY 계열 ▶색조범위 S: 20~80 C: 05~70 ▶색채특징 -고명도 중채도의 Y계열 -고명도 중고채도의 YR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GY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RB 계열 ▶색조범위 S: 02~30 C: 02~55 ▶색채특징 -고명도 중저채도의 RB계열

미국 캔트랜즈 지역의 자연경관요소는 잔디, 수목, 하늘로 크게 구분하였다. 잔디는 30~50의 고명도, 30~50의 중저채도 범위의 GY계열의 색채특징을 보인다. 수목은 녹음이 우거지거나 단풍이 든 모습으로 인해 풍부한 색의 변화가 보여 G30Y~Y40R, Y70R에 고루 분포하며 고명도 중채도의 Y계열, 고명도 중고채도의 YR계열, 고명도 중저채도의 GY계열의 색채특징을 가진다. 하늘의 경우 R80B~R90B의 색상범위에 분포하며 02~30의 고명도, 02~55의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캔트랜즈 인공경관요소 색채현황

구분	지붕	외벽	대문	창틀
단색판넬				
NCS NO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N, Y, YR, B, G 계열 ▶색조범위 S: 15~85 C: 0~05 ▶색채특징 -전명도의 N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YR계열 -고저명도 저채도의 B계열 -중저명도 저채도의 G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N, Y, YR 계열 ▶색조범위 S: 03~60 C: 0~30 ▶색채특징 -고명도의 N계열 -고중명도 저채도의 Y계열 -고중명도 저채도의 YR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N, Y, YR 계열 ▶색조범위 S: 03~90 C: 0~10 ▶색채특징 -고저명도의 N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YR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범위 N, YR, B, GY 계열 ▶색조범위 S: 03~85 C: 0~30 ▶색채특징 -고명도의 N계열 -고중명도 저채도의 YR계열 -저명도 저채도의 B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GY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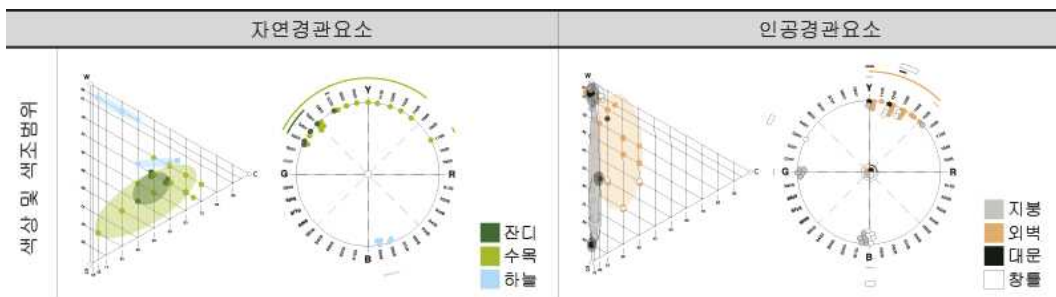
인공경관요소는 지붕, 외벽, 대문, 창틀로 분류하였다. 지붕은 **N, Y, Y50R, B, G** 계열에 분포하며 15~85의 전명도, 0~05의 극도로 한정된 저채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색상의 차이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뚜렷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외벽은 03의 고명도 범위 **N** 계열, 20~60의 고중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의 **Y** 계열, 20~60의 고중명도 05~30의 저채도 범위의 **YR** 계열에 분포한다. **N, Y~Y50R**의 색상범위에 분포하는 일관된 색상사용과 고중명도 저채도 범위의 한정된 색조범위가 특징이다. 대문은 03, 90의 고저명도 범위의 **N** 계열, 고명도 저채도의 **Y** 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YR** 계열에 속하는 색채특징을 보인다. 창틀의 경우 03의 고명도 범위의 **N** 계열, 05~60의 고중명도 05~30의 저채도 범위의 **YR** 계열, 75~85의 저명도 범위 02의 저채도 범위의 **B** 계열, 50의 중명도 범위 10의 저채도 범

위의 GY계열에 분포한다.

나. 캔트랜즈 지역색 요소 간 관계 분석

인공경관의 범위 내에서 요소 간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보조, 강조색 범위에 해당하는 요소의 색채사용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 간 비교를 통해 전체 환경의 배경이 되는 자연 속에서의 건축물 색채사용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0>과 같이 관계의 비교분석이 수월하도록 각 경관요소의 분포범위를 범주화하여 나타내었다.

<표 23> 캔트랜즈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색상 및 색조범위



(1) 인공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인공경관요소 간 관계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요소가 공통적으로 $M, Y \sim Y50R$ 의 색상범위에 속한다는 것과 $0 \sim 30$ 의 저채도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구조색에 해당하는 외벽은 보조색인 지붕이나 강조색인 창틀에 비하여 사용한 색상의 수가 적다. 또한 $70 \sim 90$ 의 저명도 범위를 포함 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과 다르게 저명도 범위 사용이 제한되었고, 채도의 사용은

요소 중 가장 유연하다. 보조색인 지붕은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N**, **Y**, **YR**, **B**, **G**와 같은 다양한 계열의 색상분포가 나타나지만 채도범위가 0~05로 극도로 한정되어 있어 명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느껴지나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강조색인 대문, 창틀은 주조색인 외벽과 색상사용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N**, **Y**, **YR**계열의 사용이 공통적이며 창틀의 경우 이외 계열에 해당되어도 저명도 저채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색상임을 잘 인지할 수 없다. 하지만 외벽과 다르게 저명도 범위를 비롯한 전 명도 범위에 속하여 명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인지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요소는 **N**, **Y~Y50R** 범위의 색상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 주조색과 강조색의 한 요소인 대문은 **N**, **Y**, **YR**계열의 한정된 색상범위에 분포한다.
- 보조색과 강조색 중 한 요소인 창틀은 **N**, **YR**계열 이외의 색상계열에도 분포하지만 채도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계열의 색상임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는다.
- 보조, 강조색은 전명도 범위에 분포하여 명도사용이 유연한데 비하여 주조색의 명도 범위는 고중명도로 명도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 주조색인 외벽, 강조색 중 한 요소인 창틀은 저채도 범위 내에서 채도사용이 유연하며, 보조색인 지붕, 강조색인 대문의 채도사용은 극도로 한정되어 있다.

(2)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를 비교하면 자연경관의 수목의 색상범위 중

일부인 $Y \sim Y_{40R}$ 을 인공경관의 모든 요소가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조색인 외벽과 강조색인 대문은 M 계열을 제외하고는 이 색상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무채색계열에 분포하는 요소가 없는 자연경관에 비하여 인공경관의 모든 요소가 무채색계열에 속하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자연경관의 모든 세 요소가 주로 15~50의 고중명도에 속하는데, 인공경관 요소 중 주조색과 보조, 강조색의 Y , YR 계열은 저명도 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고중명도 범위에만 속해 자연경관 요소의 명도 범위와 공통점을 가진다. 보조, 강조색에 해당하는 지붕, 대문, 창틀의 M , B , G 계열은 60~90의 저명도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자연경관요소를 살펴보면, 하늘과 수목의 일부 낮은 채도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가 30~50의 중저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인공경관의 모든 요소는 채도 3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분포를 이룬다. 절제된 저채도 범위에 속하는 인공경관의 색채특징으로 인해 자연이 돋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연경관의 수목의 색상범위 중 일부인 $Y \sim Y_{40R}$ 에 인공경관의 모든 요소가 분포하며 주조색은 M 계열을 제외하고 이 색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자연경관은 어떤 요소도 무채색계열을 포함하지 않지만, 인공경관의 모든 요소가 무채색계열을 사용한다.
- 자연경관의 요소들은 주로 고중명도 범위에 속하며, 인공경관의 주조, 보조, 강조색의 Y , YR 계열은 고중명도 범위만 포함하여 공통점을 가진다. 이외 색상계열은 매우 낮은 명도 범위를 포함한다.
- 중저채도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자연경관요소에 비하여 인공경관요소는 모두 저채도에 속하며 특히 보조, 강조색은 극도로 제한된 채도 범위에 속한다.

2. 일본 가나자와시

가나자와시는 일본의 중간지점인 호쿠리쿠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해안도시이다. 또한 사찰마을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전형적인 중세도시로 분류된다.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을 피해 전통도시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성을 정리한 조성태 외(2006)에 의하면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체계는 크게 이원화되어있다.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41개소의 문화재와 2개소의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 (이하 전건지구)가 있고, 전통경관조례에 의해 지정, 관리되는 각종 구역과 지구들이 있다.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전건지구로 지정된 히가시 차야가는 먼 옛날 풍류를 즐기던 찻집이 모여 있던 곳이다. 벵갈라나무색의 벽이 보여 곳곳에는 화려한 분위기도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하며, 지붕도 가나자와 특유의 순검정색 유약기와가 놓여 있어 차분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요시다 신고, 2008) 히가시 차야가를 둘러싼 주변부에는 현대적 감각의 상점, 카페와 함께 주거지가 존재하는데, 전건지구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정책으로 그 색채 또한 절제되고 있다.

가. 가나자와시 지역색 색채정보 구축

전건지구인 히가시 차야가와 주변부의 주택가 색채현황을 파악한다. 두 구역 모두 강조색으로 파악되는 요소가 뚜렷하지 않아, 구조색 요소인 외벽과

보조색 요소인 지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림 21] 히가시 차야가 현황사진

(출처: 가나자와 관광홈페이지 <http://www.kanazawa-tourism.com>)

<표 24> 히가시 차야가 색채현황

구분	지붕 및 처마	외벽(덧문 및 창)
단색표색		
NCS NOTATION	<p>▶색상범위 N, R, B, G 계열</p> <p>▶색조범위 S: 45~85 C: 0~02</p> <p>▶색채특징 -저명도의 N계열 -저명도 저채도의 R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B계열 -중저명도 저채도의 G계열</p>	<p>▶색상범위 YR, R, B 계열</p> <p>▶색조범위 S: 20~70 C: 02~60</p> <p>▶색채특징 -전명도 중저채도의 YR계열 -중명도 저채도의 R계열 -고중명도 저채도의 B계열</p>

히가시 차야가의 지붕은 **N, R, B, G** 색상계열에 분포하여 색상의 사용이 다양하지만, 45~85의 중저명도, 0~02의 저채도 범위에 속하여 대체로 어두우며, 색상의 기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덧문 및 창은 **Y20R~R, B** 색상계열에 분포하여 대체로 **YR**계열의 사용이 보이며, 20~70의 전명도 범위, 10~60의 중저채도 범위에 속하여 명도 및 채도의 분포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70의 전명도 범위, 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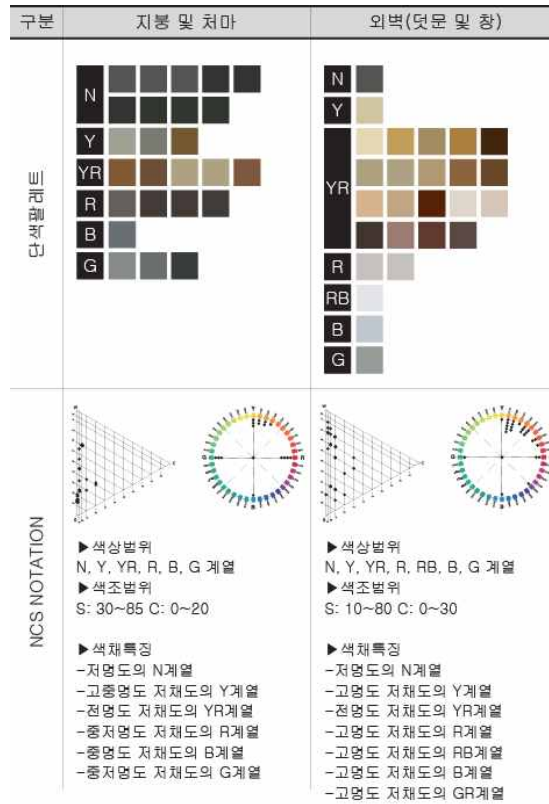
의 중저채도 범위에 분포하는 Y20R~R 계열 색들로 인해 색조범위가 더 자유로운데, B 계열의 색들은 20~55의 고중명도, 0~02의 극도로 한정된 저채도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림 22] 히가시 차야가 주변 주택가 현황사진

(출처: 구글 스트리트 뷰 <https://www.google.com/maps/streetview/>)

<표 25> 히가시 차야가 주변 주택가 색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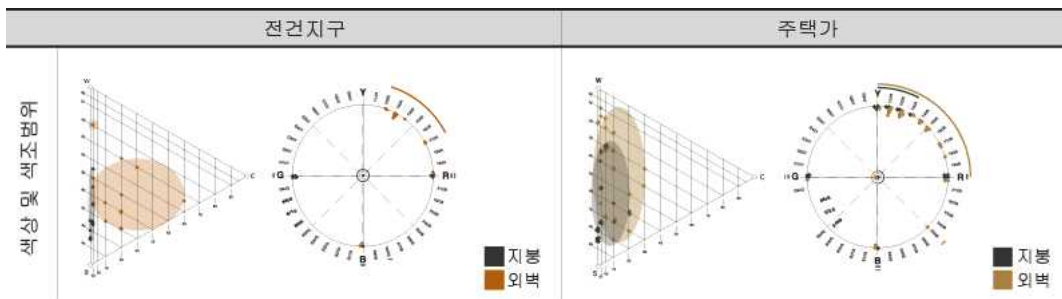
주택가의 지붕은 N, Y~Y30R, R, B, G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의 사용이 보이지만, Y~Y30R은 35~70의 전명도 범위, 02~20의 채도범위에 분포하여 이외 색상계열에 비하여 명도 및 채도 사용이 자유롭다. Y~Y30R을 제외한 색상은 45~85의 중저명도 범위, 0~02의 저채도 범위에 분포한다. 외벽은 N, Y~Y80R, R, RB, B, G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다. 외벽 역시 다양한 색상의 사용이 확인되지만, Y~Y80R의 색상은 다른 색상계열에 비하여 명도사용이 매우 자유로우며, 저채도 범위 내에서 채도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Y~Y80R색상은 10~80의 명도, 02~30의 채도 범위에 분포하며, Y~Y80R을 제외한 색

상은 10~35의高明도 범위, 0~02의저채도 범위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나. 가나자와시 지역색 요소 간 관계 분석

주택가 경관의 범위 내에서 요소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택가 건축물의 구조, 보조색 범위에 해당하는 요소의 색채사용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건지구와 주택가 경관요소 간 비교를 통해 전건지구를 중심으로 이 구역을 둘러싼 주택가의 색채사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 <표 13>과 같이 각 경관요소의 분포범위를 범주화하여 나타내고 이를 토대로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6> 가나자와시 전건지구와 주택가의 색상 및 색조범위



(1) 주택가 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주택가의 경관요소를 비교하면, 지붕과 외벽 모두 공통적으로 N, YR, R, B, G계열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YR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Y~Y3OR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붕에 비하여 외벽은 Y~R까지 더 넓은 범위의 YR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요소는 30~80의 중저명도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며, 외벽은 지붕보다 밝은

10~30의 고명도 범위에도 분포한다. 또한 두 요소의 YR계열을 제외한 색상은 채도 범위가 0~02로 극도로 낮지만 두 요소의 YR계열에 속하는 색채는 외벽이 02~30, 지붕이 02~20으로 채도 사용이 저채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다. 또한 외벽의 경우 YR계열 이외의 색상은 10~35의 고명도 범위에 분포하고 Y~Y80R색상은 10~80의 전명도 범위에 분포하여 YR계열에 속하는 색채는 명도 사용이 자유롭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조색에 해당하는 외벽과 보조색에 해당하는 지붕 모두 N, YR, R, B, G계열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 구조색과 보조색 모두 전명도 저채도 범위에 분포하지만 구조색의 색조 사용이 조금 더 자유롭다.
- 구조색과 보조색 모두 YR계열 이외의 색은 채도 사용이 제한적이다. 구조색은 YR계열 이외의 색은 명도사용도 제한적이다.

(2) 전건지구 경관요소와 주택가 경관요소 간 관계 분석

전건지구와 주택가 두 구역 간 색채사용을 비교하면, 구조색에 해당하는 전건지구의 창문 및 덧문과 주택가의 외벽의 관계를 살펴보면, Y20R~R, B계열에 분포하는 전건지구와 달리 주택가에서는 Y~R외에도 N, RB, B, G 등 더 많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전건지구는 Y20R~Y40R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주택가는 Y부터 R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 구조색의 색상 사용이 더 자유롭다. 색조특징을 비교해 보면, 전건지구는 20~70의 전명도 범위, 10~60의 중저채도 범위에 속하고 주택가는 10~80의 전명도, 02~30의 채도 범위에 분포하여 두 구역 모두 전명도 저채도 범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전건지구의 경우 벵갈라 나무를 사용하여 주택가보다 높은 범위의 채도에 분포하여 채도 사용은 더 자유롭지만, 명도는 주택가에서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두 구역의 주조색 요소 모두 **YR**계열 이외에 해당하는 색은 **0~02**의 극도로 낮은 채도 범위에 속한다. 보조색에 해당하는 전건지구와 주택가의 지붕은 공통적으로 **N, R, B, G**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지붕이 **Y~Y3OR** 범위를 포함하며 조금 더 자유로운 색상 사용을 보인다. 두 구역의 지붕은 공통적으로 **45~85**의 중저명도, **0~02**의 저채도 범위를 포함하며, 주택가의 지붕이 **20~85**의 전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에 속하여 색조 사용이 더 자유롭다. 이는 주택가의 지붕이 추가적으로 **Y~Y3OR**의 색상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높은 명도, 채도 범위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구역의 주조색에 해당하는 덧문 및 창과 외벽은 공통적으로 **YR, B**계열을 사용하며 주택가의 외벽이 **N, RB, G**등 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 두 구역의 주조색 요소는 모두 전명도 범위에 분포하지만 주택가의 명도 사용이 더 자유로운 편이다. 전건지구의 주조색 요소는 전체도, 주택가의 주조색 요소는 저채도에 분포하여 주택가의 채도사용이 더 제한적이며 특히 **YR**계열 이외의 색은 채도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두 구역의 보조색에 해당하는 지붕은 공통적으로 **N, R, B, G**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며 주택가의 지붕이 **YR**계열을 포함하여 더 자유로운 색상 사용을 보인다.
- 전건지구의 보조색 요소가 중저명도 저채도에 분포하는 반면 주택가의 보조색 요소는 전명도 저채도에 분포하여 더 높은 명도와 채도범위에도 분포

한다. 이로써 주택가 보조색 요소의 색조사용이 더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지만, YR계열 이외의 색은 채도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D. 색채기준 제안

제주도 현대주거경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색채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색채기준은 자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에서 보이는 풍토적 요인을 고려한 색채기준, 두 번째 색채기준은 역사문화재가 위치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색채기준이다. 두 가지 색채기준 모두 전 장에서 정한 제안 방법을 따른다.

1. 지역색 경관요소 간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대주거경관요소의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2. 사례지역의 색채계획 원리를 참고하여 제안한다.
3. 상위계획 지침내용 중 경관색채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두 가지 색채기준이 동 떨어지지 않으며 조화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1. 자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을 고려한 범위

주조색의 색상 및 색조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제안한다.

- 자연경관의 주요한 요소인 토양, 식물의 색과 전통주거경관의 절제된 주조색 색 범위에 비하면 현대주거의 주조색 요소는 색상범위가 넓은 편이다. 하지만 주조색 요소인 외벽은 기본적으로 G30Y-G70Y를 제외한 G~R범위에 주로 분포하여 토양, 식물 그리고 전통주거의 주조색 범위와 공통된 범위를 갖는다. 공통된 범위인 Y~Y80R 범위 내에서 색상범위를 선정한다. 현대주거경관의 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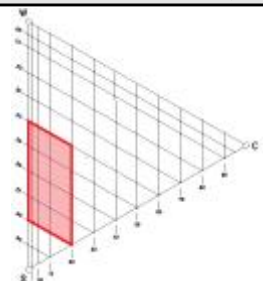

색 요소인 외벽은 03~90의 전명도, 0~05의 저채도, 05~20의 고명도 0~20의 저채도 범위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 자연경관의 모든 요소보다 색상기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고 있어 채도 범위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 사례지역 색채계획의 원리에 따르면 주조색은 보조, 강조색에 비하여 제한된 색상 계열을 사용하며 명도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채도사용은 저채도 범위 내에서 0~30으로 가장 자유롭다. 이를 반영하여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한정된 색상계열을 사용하는 저채도 범위로 선정한다. 또한 무채색을 사용하여 자연경관요소와 색상 대비를 이루는 것을 반영한다.

- 상위지침의 내용에 따라 자연을 돋보이게 하며, 자연 본연의 색을 존중하기 위해 색조범위 고려 시 자연의 채도범위보다 낮은 0~30의 범위 내에서 채도범위를 한정시킨다. 또한 상위지침의 내용 중 돌담과 어울리는 경관색채로 계획하기 위해 40~90의 중저명도 범위에 근접한 명도 범위로 선정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조색의 색상범위는 N, Y-Y50R로, 색조범위는 40~80의 명도범위, 0~20의 채도범위를 선정하였다.

<표 27> 색채기준1: 주조색 적용범위

주조색 적용범위	
NCS 표기	 
색상 범위	N, Y-Y50R
색조 범위	S: 40~80 C: 0~20

보조색의 색상 및 색조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제안한다.

- 색상과 색조범위에서 일관된 경향 없이 전명도, 저채도의 \mathbf{N} , $\mathbf{Y}\sim\mathbf{R}$, \mathbf{RB} , $\mathbf{B}\sim\mathbf{G}$, \mathbf{GY} 의 다양한 색상계열을 사용하는 보조색 요소는, 주조색 요소의 색상 범위를 한정시켰으므로 색상계열의 사용을 풀어주어 다양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명도와 채도 범위에서는 한정적인 범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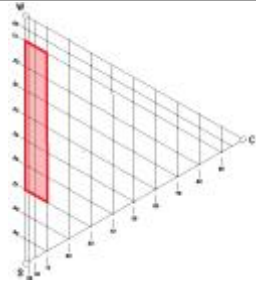

- 사례지역의 색채계획 원리에 따라 명도 범위는 주조색 요소의 범위보다 유연하게, 채도 범위는 더 제한적 범위로 선정한다.

- 상위지침의 내용에 따라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의 적용을 지양한다. 제주의 지붕은 원경에서의 마을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오름과 같이 높은 곳에서의 조망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저채도 범위로 선정한다.

- 채도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므로, 명도 범위는 주조색보다 유연한 범위로 선정하며, 주조색과 명도차이가 나도록 하여 두 요소간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조색의 색상범위는 \mathbf{N} , $\mathbf{Y50R}\sim\mathbf{R}$, $\mathbf{R80B}\sim\mathbf{B}$, $\mathbf{B50G}\sim\mathbf{G40Y}$ 로, 색조범위는 10~70의 명도범위, 0~10의 채도범위로 선정하였다.

<표 28> 색채기준1: 보조색 적용범위

보조색 적용범위	
NCS 표기	 
색상 범위	N, Y-Y50R, R80B~B, B50G~G40Y
색조 범위	S: 10~70 C: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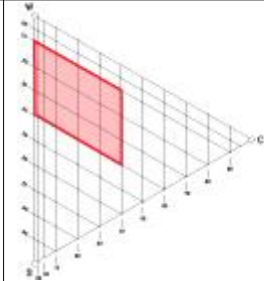

강조색의 색상 및 색조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제안한다.

- 채도범위를 한정시켜 차분한 느낌을 가진 주조색, 보조색과 다르게 중채도 범위의 사용으로 경관의 활력을 유도한다. 또한 중저명도 범위를 포함하는 주조색, 보조색과는 다르게 0~30 위주의 고명도 범위로 선정하여 명도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 채도범위를 유연하게 풀어주므로, 색상범위는 주조색의 색상범위인 YR 계열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창틀의 경우 원래의 색채현황에서도 N, Y~Y30R 범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았으므로 이를 반영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강조색의 색상범위는 N, Y~Y50R로, 색조범위는 10~40의 명도범위, 0~40의 채도범위를 선정하였다.

<표 29> 색채기준1: 강조색 적용범위

강조색 적용범위	
NCS 표기	 
색상 범위	N, Y-Y50R
색조 범위	S: 10~40 C: 0~40

2.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범위

주조색의 색상 및 색조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제안한다.

-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YR계열에만 분포하는 데 비해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N, YR, G, GY 계열에 분포하여 더 많은 색상 계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Y~Y90R의 공통범위를 가지므로 이를 중심으로 색상 범위를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현대주거경관의 주조색 요소는 더 낮은 채도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 요소가 40~60의 중명도, 30~50의 중채도 범위에 분포하므로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채도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선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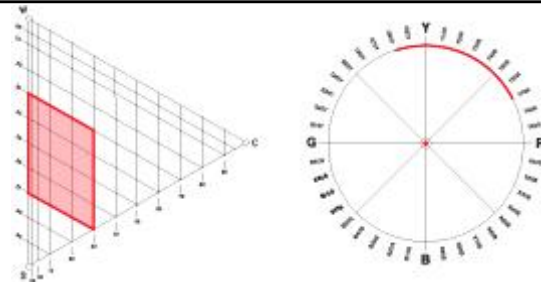
- 사례지역 색채계획의 원리에 따라, 역사문화경관의 주조색이 주로 분포하는 비율이 높은 색상 계열 중심으로 범위를 선정하며, 명도범위는 유연하지만 채도범위는 절제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선정한다.

-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구역이 자연경관, 전통주거경관을 고려한 구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저명도 저채도 범위와 크게 상이하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조색의 색상범위는 **Y-Y70R**로, 색조범위는 **30~70**의 명도범위, **0~30**의 채도범위를 선정하였다.

<표 30> 색채기준2: 주조색 적용범위

주조색 적용범위	
NCS 표기	
색상 범위	N, G80Y-Y70R
색조 범위	S: 30~70 C: 0~30

보조색과 강조색의 색상 및 색조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제안한다.

- 색상과 색조범위에서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던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에 비하여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는 기와지붕색인 **R80B~B**, 문 및 창틀 색인 **B30G~B60G**으로 일정한 경향의 색상 범위를 가지고 있다. 두 경관요소의 공통되는 범위인 **R80B~B60G** 범위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사례지역의 색채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적용한다. 현대주거경관의 보조색 요소의 색채범주를 강조색 요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역사문화경관과 연속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강조색인 단청의 화려함이 돋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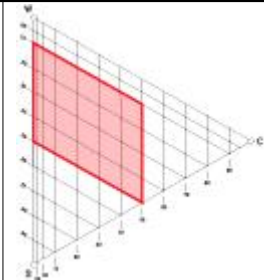

- 주조색의 채도범위를 원래의 현황보다 유연하게 하였으나 명도범위는 제한하

였으므로, 보조색 및 강조색 범위는 명도범위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선정한다.

- 역사문화경관의 보조색 요소인 문 및 창틀과 강조색 요소인 단청의 색조범위를 (명도 05~40, 채도 10~80) 살펴보면 밝고 채도가 높은 범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도 범위는 중채도 위주로 주조색 요소보다는 유연하게 선정한다. 하지만, R80B~B 이외 BG계열의 색상을 사용할때는 0~10의 제한된 채도 범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채도의 남용을 방지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조색의 색상범위는 R80B-B60G로, 색조범위는 10~60의 명도범위, 0~40의 채도범위를 선정하였다.

<표 31> 색채기준2: 보조색 및 강조색 적용범위

보조색 및 강조색 적용범위	
NCS 표기	 
색상 범위	R80B~G
색조 범위	S: 10~60 C: 0~40

V. 결론

지역의 정체성을 위한 지역 고유색이 화두에 오르며, 지역색에 초점을 맞춘 경관색채계획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색에 주목하여 경관색채를 계획할 때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개방법론의 정립을 위해, 지역색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도출해낸 시사점을 토대로 전개방법론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일련의 전개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지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진행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방법론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관점을 수립할 수 있었다.

문헌적 고찰과 기존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지역색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전개방법을 네가지 단계로 구축하였다. 크게 대상지 고찰,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지역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색채계획안 제안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지를 고찰함에 있어, 풍토 문화적 요인의 배경이 되는 자연, 인문적 환경특성과, 수립된 상위계획 중 색채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후, 지역색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대상지가 보유한 고유한 지역색 요소를 선정하고, 경관유형의 체계하에 분류하여 색채 수집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한 색채 데이터는 **MCS** 색상 및 색조들을 이용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색을 분석하는 단계를 제안하였다. 지역색을 분석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이의 지역색 요소들과의 색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요소 간 색상, 색조 범위 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과 색상 사용수의 많고 적음, 색조 범위의 유연함과 절제됨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사례지역 색채현

황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앞서 구축한 조사, 분석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색채계획 원리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정한 대상지의 지역색 구성요소와 상응하는 구성요소를 가진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색채계획안을 제안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다. 고려사항은 지역색 색채현황 분석 내용, 사례지역을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 상위지침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제주도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역색을 기반으로 한 경관색채계획 방법론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관점을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색을 형성하는 요소의 선정 배경은 대상지의 기후, 지리적 위치, 지형지세, 토양과 같은 풍토적 요소와 역사, 고유한 생활양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근거로 추출되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의 기호, 연상에 의해 지역을 상징하는 요소를 추출한 기존 연구의 경우 지속적인 관점을 가진 요소를 추출하기 어렵다. 또한, 용도지역별로 분류한 건축물만을 중심으로 지역색 구성요소를 선정한 기존 연구는 인공경관에 대한 근원적인 기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지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어 요소를 선정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다. 따라서 풍토, 문화적 요인을 근거로 대상지의 자연, 인문적 환경을 고찰하는 관점으로 색채계획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풍토, 문화적 요인으로 선정된 자연경관요소, 현대주거경관요소, 전통문화경관요소, 역사문화경관요소는 요소 간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지역색은 지역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근거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적 부분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을 이루는 부분과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된다. 지역색으로 조사된 현황색채를 그대로

주조, 보조, 강조색으로 지정한 경우, 색채계획안 제안에 앞서 지역색 구성 요소 간에 긴밀한 연계적 구조를 수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스템적 사고의 관점에 근거하여 지역색 요소 간 분석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계획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대주거경관요소 간 관계, 현대주거경관과 자연경관요소 간 관계, 현대주거경관과 전통문화경관요소 간 관계, 현대주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선될 여지가 있는 현대주거경관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색 요소 간 관계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을 고려한 범위,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범위로 나누어 요소 간 조화성을 추구하는 색채기준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한 색채를 분석할 때에는 색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색상계열은 **YR, RB, BG, GY** 계열만으로 비교하여 더 세분화된 범위의 비교는 하고 있지 않으며, '고채도' 혹은 '무채색'과 같은 용어 중심의 비교를 통해 정량적이지 못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 색채계획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지 못한 색채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지역색 요소 간 색상 및 색조범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할 시 색채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색채기준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

제주도의 색채기준을 제안함에 있어서, 주조, 보조, 강조색 범위를 **NCS** 색상 및 색조틀에 범주화하여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과 전통주거경관을 고려한 색채기준의 주조색의 경우, **N, Y-Y50R**의 색상범위와 **40~80**의 명도범위, **0~20**의 채도범위를 선정하였다. 색상 및 색조 범위를 범주화하여 제안하는 것은, 다양한 색채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소연. (2014). 산업단지 경관 (景觀) 을 고려한 환경 색채디자인 제안 연구-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8(4), 51-62.
- 권영걸. (2002). 이제는 색이다. 서울: 도서출판국제.
- 권진희. (1999).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조화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가람. (2012). 도시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색채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길홍, 최경실, 박정은, & 이윤경. (2001). 환경색채계획론.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김미영. (2010). 도시경관 미적 개선 및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경관색채계획 연구-동대문구 도시경관 색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7, 37-52.
- 김윤희, & 이명희. (2009). 지역경관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개선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2(4), 109-121.
- 김현선, 주정희, 윤혜진, 김나라, & 김미숙. (2012). 자연경관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환경색채계획.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6(4), 171-183.
- 김현선. (2010). 서울의 지역색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4(4), 27-39.
- 도시경관계획 (2009).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도서출판 발언.
- 류순호. (2000). 토양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선욱. (2008).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한국디자인포럼, 21, 131-140.
- 문선욱. (2011). 지역색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4), 51-58.
- 문선욱. (2011). 지역색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4), 51-58.
- 문선욱. (2012). 서울시 도봉구 경관색채 계획 및 가이드라인* . 휴양 및 경관연구, 6(2), 111-124.

- 문은배, & 최현정. (2014). 지역색 수집을 위한 경관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285-298.
- 문은배, 한지원, 김영훈, & 오경선. (2014). 환경 친화적 색채를 이용한 농촌 마을의 환경색채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8(4), 63-73.
- 문정민, 김영환, & 장동국. (2007). 도시환경 색채경관계획 및 디자인지침에 관한 연구-순천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6, 165-174.
- 박연선, & 이지영. (2014). 지역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한국 지역색 조사, 분석-자연공원 토양색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2), 10-17.
- 박정은. (1999). 환경색채조화 및 색채계획방법에 관한 모형사례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요시다 신고. (2008). 환경색채디자인의 기법 도시의 색을 만들자. 이석현 역). 서울: 미세움.
- 이상희, & 박연선. (2013). 부산 색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설정.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7(3), 81-91.
- 이석현. (2008). 경관색채계획의 이론과 실천. 서울: 미세움.
- 이석현. (2011). 풍토환경을 고려한 전원마을 환경색채계획-금천 전원마을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25(2).
- 이선민, & 이민석. (2007). 도시주거단지에 나타난 색채사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6), 250-257.
- 이정준, & 전규엽. (2014). 제주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른 민가의 건축 및 외피재료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1(1), 42-50.
- 이지혜. "지역색을 고려한 도시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공공시설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2 (2010): 386-397.
- 이진숙, 김한나, 류지선, & 이희원. (2013). 청송군 색채경관계획을 위한 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7(2), 109-119.
-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송이, & 이명희. (2014).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관색 연구-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4), 617-632.
- 조성태, 강동진, & 오민근. (2006). 일본 가나자와 (金澤) 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

- 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7(0).
- 조세환. (20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한국조경학회, 38(2), 109-118.
- 최일홍, 정두용, 오민근, 이석현, & 윤진욱. (2007). 경관법과 도시공간 관리. 도시정보, (306), 3-21.
- 기상청. (2009). 제주도 기후변화 경향 및 기후특성에 관한 연구.
- 산림청. (2015). 국가지도집 자료 제공(임상 및 수종분포도).
- 제주도, 국토개발원. (1994). 제주도 중간산지역 종합조사(자료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 Lenclos. J. P., Lenclos D. (2009). 환경, 건축, 그리고 색, 서울:미진사 (원전은 1999년 출판).
- 가나자와 관광홈페이지 <http://www.kanazawa-tourism.com>
- 구글 스트리트 뷰 <https://www.google.com/maps/streetview/>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u.go.kr>
- 켄트랜즈 공식 홈페이지 www.kentlandsusa.com/

ABSTRACT

Landscape color planning methodology based on local color : study on jeju island modern housing landscape

Lee, HyoYeon
Major in Color Design
Division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Local sceneries have been standardized due to application of modernism and capitalism on cities and the importance of landscape color planning based on a city's unique environment and history is being realized. However, methodological research on the unique color element is insufficient. Therefore, systematic methodology which can be applied on local landscape color planification is suggested in this paper. Finally, crucial viewpoints of the methodology is established through empirical studies on selected research area.

Prior to solidifying the methodology,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landscape color planning and local color were researched and studied in detail. Based on the obtained information, implications were deducted and the methodology was suggested. Then, the methodology was applied on the chosen research area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ology.

Jeju island is selected as the research area. Despite Jeju island's unique

environment,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background, the island lacks visual balance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raditionally unique landscape. Landscape color planning methodology is applied on the jeju area in order to make jeju look more 'jeju-is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natural components and cultural elements need to be considered when extracting local color of the selected area. Natural components include climate, geographical location, topography, and soil. Cultural elements contain history and life style.

Uniqueness of the objected area can be emphasized by considering natural and cultural components and since these elements are everlasting, color planification may be conducted in unchanged point of view.

Secondly, relationships among natural landscape, modern housing landscape,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ical culture have to be analyzed based on systemized viewpoin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rather than individual focusing on each component is essential when planning landscape color.

Lastly, boundary of colors needs to be clear when analyzing the observed colors. Quantita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component color reduce error when applying the color planning and help standardizing relatively precise and definite color.

Viewpoints and outcomes of the research can be practically used when planning landscape color based on local color. Although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may contain spatiotemporal limitations, the paper is significant as it thoroughly suggests

selection method of local color components considering both spatial and temporal backgrounds of the area.